

엄맛!

눈덩이가 퍽 소리를 내면서 내 등에 부딪혔다.

“오빠! 또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이른다”

민지가 나 대신 성화다. 내가 뒤돌아본 그곳에 어쩐지 괴상한 모자를 쓴 작은 아이가 엉거주춤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던졌어요.”

그 아이는 나를 보더니 구십 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였다. 검은색 비니를 코 망울까지 내려쓰고는 양 눈에 구멍을 뚫어 나를 바라보며 사과하는 모습이 사과하는 아이의 모습이라기엔 어쩐지 괴상하기까지 했다.

“언니 그냥 가자. 신경 쓰지 마. 오빠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민지는 내 겨드랑이 사이로 팔짱을 끼우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너보다 오빠야?”

내가 물었다.

“그치 그렇게 안 보이지? 땅꼬마에다가 하는 짓도 저렇다니까. 언니보다도 한 살 위야 내년엔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언제나 속을 차릴는지...”

민지에게 끌려가다시피 가는 와중에도 나는 그 애를 돌아다 보았다. 눈덩이를 쌓아 올려 눈사람이라도 만들 요량인지 어느새 뒤돌아서서 열심히였다. 내가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엉덩이를 치켜든 채 고개를 돌려 빼꼼히 나를 쳐다보는 것이 그냥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짧은 해가 누엣누엣 저물어갈 무렵 민지와 헤어진 나는 집으로 향했다. 겨울엔 노을이 잘 안 진다던데 그 날따라 붉은 노을에 쌓인 눈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멍칫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까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지 눈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괴상한 모자는 아직까지 꼭 눌러쓰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면 웬지 무안할 것 같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 그냥 돌아갈까 하던 찰라. 그 아이가 작업을 마쳤는지 만족한 모습으로 눈덩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이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천천히 그 눈덩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다. 멀리서 보기엔 그냥 하얀 눈이라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두 손으로 턱을 껴 소녀의 모습이었다. 눈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이렇게 진짜 사람을 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무엇이 아깝기라도 했는지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이나 우두커니 그 눈 조각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이 켜지자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표면이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그 괴상한 모자를 쓴 아이가 수십 번이고 매만졌었을 소녀상의 볼에 손을 가져다 대어 보았다. 왠지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이런 걸 공터 한구석에 만들어 놓고 발걸음도 가볍게 떠난 그 아이 뒷모습을 생각하니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며칠 후 나는 민지에게 그 아이에 관해 물어보았다.

“응 그 오빠? 나도 친한 사이는 아니야. 오빠라고 부르기도 어쩐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다니는 롤러장에 주말마다 오는 오빠데.... 응.... 근데 왜? 어제 집에 가다가 또 마주친 거야?”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눈사람을.... 아니 눈으로 진짜 사람을 꽤 잘 만들어 놔던데?”

“응 어려서 무슨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눈 오는 날이면 추운지로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눈으로 별짓을 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신기해하긴 해. 혹시 언니 관심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구.... 눈사람이 꽤 잘 만들어져 있길래 물어본 거야.”

“그래 설마지. 언니 좋다고 따라다니는 오빠들이 줄을 섰는데 땅꼬마가 눈에 들어 올 리는 없지. 언니는 근데 남자친구 언제 사귄 거야. 정말 언니 부럽다.”

민지가 뭐라고 하는지 귓등 밖에서 머무를 뿐 나는 탄생각하다가 피식 웃었다.

“나도 롤러스케이트 배워볼까?”

민지는 의외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반갑게 대답을 하였다.

“그래 그러면 주말에 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어찌려고 이 애미 이야기는 안들을 테니?”

“아이고 어머니 애가 들어요. 그만 하세요. 어련히 제가 다 알아서 할까 봐요.”

할머니는 또 아버지에게 오늘도 성화 시다. 내가 그 내용을 모를 리는 없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들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할머니 말을 막느라 진땀을 빼고 계셨다. “내가 아주 낮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열녀문 세운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넌 도대체 뭐가 모자란다고 이렇고 있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이라도 하나 떡 하니 이 애미 품에 안겨줄 생각은 안 하고 몽달귀신이 들어와 앉았나 아니면 머리 깎고 중이라도 될 셈이냐?”

“어머니 4 년 정도만 참으면 애도 크고 이해할 나이가 되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람이 그렇게 만나자고 만나 지나요?”

“그래 말 잘했다.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지는 게 사람인데 나 잡아가쇼 하고 따라다닌 슷처녀도 마다하고 도망 다니니 안 만나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아빠는 할머니 방의 문을 꼭 닫으시고 할머니와 한참 동안 티격태격하셨다.

잠시 후 내방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빠가 문을 열고 뚝뚝히 들여다보셨다. “아빠 들어와요.”

“그래 들어가도 되겠니?”

“응”

“미안하구나 시끄럽게 해서. 할머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니 맘에 담아 두지 말아라.”

“난 괜찮아 아빠. 그리고 나도 이제 철없는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아빠는 괜찮으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할 것 없단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이 뭔데? 아빠 새엄마 만드는 거?”

“으응.... 아빤 전혀 그럴 생각 없단다.”

“아빠. 사실 이제 아빠가 할머니 말처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가신지도 오래되었고.... 나도 더 늦기 전에 동생 하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

아빠는 나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키만 컸지 어린애인 줄만 알았는데 아빠에게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많이 컸구나. 너처럼 순수한 사람만 나타난다면 난 언제라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그러기엔 내 나이쯤 되어보면 보여 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이 가려지기 쉽단다.”

“보여 지는 것들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진다는 게 뭐야?”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야.”

아빠는 나에게 나중에 차차 알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대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보여 지는 것과 상관없는 순수한 것.... 웬지 그런 게 뭔지 나는 대충 알 것만 같았다.

할렘 디자이너~

스피커가 쿵쿵거리고 정신없이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돌았다.

처음 와본 롤러스케이트장은 생각보다 훨씬 어지럽고 정신을 쏙 빼놓는 곳이었다.

“언니 저기서 신발 바꿔 신고 오면 돼! 같이 가자.”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민지의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일단 무엇인가 상황파악을 위해선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잠깐 아직 좀 있다가 하면 안 될까? 뭔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 처음이라 좀 그렇지? 그럼 여기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

민지는 나를 벤치로 안내하고 미끄러지듯이 인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닭뿔처럼 무스로 머리에 잔뜩 힘을 준 아이들 물 빠진 청바지를 접어 올려 하얀

양말 위 종아리까지 드러낸 모습 허리띠가 무릎까지 덜렁거리는 패션.... 매우 난해하지만 나름 제한된 재료 안에서 멋있겠다고 몸부림친 모습이 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어쩐지 불량스러워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도대체 치마인지 바지인지 모를 것을 바닥에 끌며 내 앞을 지나갔다. 껌을 씹으며 아래를 꼬나보는 모습이 무척이나 거슬렸다.

갑자기 내가 왜 여기에 온다고 했는지 스스로 의아해졌다. 웬지 내가 여기 온 것을 아빠가 알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민지가 미끄러지듯 내 옆으로 와 앉았다.

“언니 안탈 거야? 신발 갈아 신고 와서 우리 저기 원안에서 연습해보자.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응.... 아니.. 난 아무래도 타지 않는 편이 좋겠어.”

“그래? 왜? 기분이 별로야? 음.... 약간 불량스런 오빠들도 있어서 내가 좀 걱정이긴 했는데.. 언니 불편하면 오늘은 이 정도만 타고 그냥 집에 가자.”

“아니야 그런 거. 너 타는 거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너 더 타고 조금 있다 같이 나가자.” “그래 그럼 내가 조금만 더 탈게. 오래 안 걸리니까 기다려.”

민지는 다시 원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무래도 여기에 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잠깐 와서 그냥 가는 거니 그렇게 크게 후회할 일도 아니었다. 웬지 불편한 시선이 느껴져서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분명 그땐 괴상한 모자를 코까지 눌러 써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구멍 두 개 사이로 보이던 눈망울이 단박에 내 눈에 들어왔다. 틀림없이 그 아이였다.

그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깔깔거리며 배를 움켜 움켜쥐며 들어왔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으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졌다.

그러더니 이내 내 쪽으로 다가 왔다. 나는 몸이 굳고 얼굴이 빨개졌다. 아는 체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그 애는 나와 한 뼘도 안 되게

스쳐지나갔다. 분명 눈도 마주친 것 같은데... 내가 그 애를 올려다 볼 때 분명 그 애도 나를 내려다 보았었다. 나보고 웃는 건지 원래 웃고 있으면서 내 앞을 지나는지 알 순 없었지만 그냥 씹하고 지나쳤다. 모자로 반쯤 가린 얼굴을 알아차린 나는 누구고 내 얼굴을 뺨히 보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집에 돌아온 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이었는지 한참이나 귀가 웅웅 거렸다.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다가 문득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누군지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낯설어 보였다. 나 좋다고 집까지 따라오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무서워 보였는데 내가 도대체 누굴 보려고 어디까지 다녀온 것인지 이걸 도대체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만약 먼저 아는 체 했었다면 어쩔 뻔 했는지 십년은 감수한 느낌이었다. 베개를 눌러 귀를 막아도 롤러스케이트장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씨익 웃고 지나가는 그 애의 표정이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불량스런 남자아이들의 시선까지... 그곳은 절대 두 번 갈 곳이 못된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는 다시 그곳 벤치에 앉아 있었다.

롤러스케이트를 안타면 롤러장에 온 것으로 봐야하나? 나는 여기에 속하려 온 게 아니라 관찰하러 온 것 뿐이야. 그 중에서도 저 애는 나쁘지 않는 관찰거리인 것은 확실했다. 여전히 불량스러운 애들이 눈길을 주거나 옆에 앉아서 시답지 않는 말을 걸기도 했지만 돌고래 보러왔는데 전갱이가 신경 쓰일 리는 없었다. 뭐라고 재잘거리는 지 들리지는 않지만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보는 것 같이 표정 하나 하나가 왠지 우스웠기 때문이었다. 가장 볼만한 장면은 깔깔거리고 웃다가 실신하는 것처럼 쓰러져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였다.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 두 번은 있었다. 아무튼 그러한 서스펜션까지 있다니 아무 내용도 없이 웃는 모습으로 하나로만 사람을 웃게 만드는 새로운 장르의 코미디 프로라고나 할까?

“언니 저기 오빠 중에 약간 키 크고 마른 오빠 있지?”

“응 그런데?”

“그 오빠가 승재오빠데 여기서 인기 많아.”

“응 그렇구나.”

“언니도 관심 있어서 보이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입구 쪽으로 나가더니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이 보였다.

“응. 그래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나는 볼 장 다 본 사람처럼 그곳을 빠져 나왔다.

“아빠 있지... 어떤 감정이 들어야 그 사람이 좋다는 느낌인지 알 수 있을까?”

난 아무래도 신기한 걸 발견하고서 발설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처럼 아빠에게 물었다. “글쎄? 아빠도 너무 오래 전에 느껴 본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구나. 왜 누구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겼니?”

“아이참.. 내가 질문한 건데 왜 아빠가 나한테 유도 심문하는 거야? 내가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도 안 돼. 참. 난 그냥 엄마 만났을 때 아빠 감정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갑작스런 엄마 이야기에 아빠가 갑자기 조용해지셨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았다. “엄마가 있었다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줬을 텐데 미안하구나. 아빠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본지 오래라서 말이지.”

그렇게도 다정하시던 아빠가 내가 자라남에 따라 힘에 부쳐 하시는 모습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하셨다.

“굳이 말하자면 바라만 봐도 이유 없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 아닐까?”

난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개를 꼭 껴안고 아빠의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어쩔 세월이 아주 번쩍 이야. 이제는 누가 봐도 아가씨지 암... 아가씨야.”

할머니가 대견하신 듯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러게 저번에 잠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아마도 네가 반에서 제일 크지?”

난 그녀의 말에 그냥 웃어보였다.

아줌마라고 하긴 무례한 것 같고 언니라고 하기엔 더 이상했다. 내가 아빠에게 같이 보자고 계속 설득해서 이렇게 내 생일에 모두 모이긴 했지만 아직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숙녀 티가 나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속은 아직 애인데...”

아빠는 걱정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애는 무슨 예전 같았으면 다 시집갈 나이 이구먼...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한 것도 다 우리 아이가 이야기해서 만든 자리라우. 애가 그렇게 속이 깊어. 자기 아버지 장가,,,,.

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급히 끊었다.

“아이고 어머니 무슨 또 그런 말씀을 불편하게...”

그녀는 고개를 약간 돌리더니 배시시 웃었다.

“그래 그래 알았다. 늙은 것이 주책이지.. 나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이야기들 나누거라.”

“어머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 아닙니다. 저도 지금 화장실 가려던 차이니 내가 모시고 다녀 올게요.”

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며 일어나셨다.

두 분이 식당 복도 쪽으로 사라지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파운데이션을 집어 들더니 거울을 들고 바쁘게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어머 정말 넌 어쩔 그렇게 이쁘니?”

거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라 누구보고 하는 이야긴지 잠깐 헛갈렸다.

“이제 고 1 올라간다고 했지?”

“아니요 중 3 올라가요.”

“뭐 진짜? 너 정말 조숙하구나. 깜짝 놀랐다. 정말.”

지난번에도 깜짝 놀라더니 이번에도 같은 대답에 똑같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아빠가 돌아와서 선물을 뜯어보았다. 아줌마가 준 선물은 머리핀이었다.

“긴 머리랑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핀 샀는데 맘에 드니?”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묵직한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전에 네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사진기다. 이 모델 맞지?”

“와! 아빠 진짜 사주실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아빠.”

내 온도차이가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아빠가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애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거라서요. 그래 이걸로 어떤 걸 찍고 싶니?”

아줌마는 놀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했다.

“학생인데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다녀도 되나 몰라. 역시 최사장님은 씬씬이가 크시다니까. 애! 누구한테 뺏길라 잘 간수하고 다녀야겠다.”

아빠는 그녀를 살짝 쳐다보다 다시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말씀하셨다.

“필름도 넣어 놔으니까 일단 우리 이 자리 기념으로 한방 찍으면 어떨까?”

“당연하죠 아빠.”

당연히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지만 내가 진짜 찍고 싶은 건 다른 그 무언가 였다.

며칠 후 나는 현상한 사진들을 아빠에게 보여 드렸다.

“어디보자. 처음 찍은 사진치고는 꽤 괜찮은데?”

한 장씩 사진을 넘기면서 아빠가 말씀을 이었다.

“여긴 롤러스케이트장 같은데 이런 곳도 다니니?”

“아니야 아빠 여기 민지 따라 한번 간 건데 패닝샷이라고 아빠도 알지. 그거 연습하기 좋은 곳이라서 한번 가본거야. 나 롤러스케이트 탈지도 모르는데 뭘.”

“그래. 이 사진은 그러고 보니 속도감이 꽤 느껴지는구나.”

사진을 넘기다가 환하게 웃는 인물이 부각된 사진에서 아빠의 손이 멈췄다. 나는 뭔가 기대감에 휩싸여 아빠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아쉽게도 아빠는 다음 장으로 사진을 넘겼다.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액자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서랍 속에 고이 넣어 두었다.

“언니 이제 금방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줄 사람 있어?”

뭔가 설레임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는 질문이었다

“글쎄 아직 나 한 번도 누구에게 초콜릿을 줘 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 넌 주고 싶은 사람 있어?”

“글쎄 나도 뭐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괜히 잘못 줬다가 창피만 살 것 같아 결정하지 못했어. 요즘 언니 주말마다 롤러장 카메라 연습한다고 다니는데 혹시 좋아 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그냥 카메라 연습하러 오는 거야. 너랑 만나서 이야기도 하니까 재미도 있고. ”

“에이~ 언니 내가 뭐 모를까봐. 언니 쳐다보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데 눈치 못 채겠어?”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내가 저번에 말한 마르고 키 큰 오빠 말이야. 승재 오빠. 그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

“승재오빠가 누군데?”

“진짜 몰라? 그 땅꼬마 오빠랑 항상 붙어 다니는 키 큰 오빠 말이야.”

나는 그제서야 승재오빠가 누군지 알아차렸다.

“응 누군지 이제 알겠다. 근데 나 정말 그 사람은 잘 모르고 별로 관심 없어.”
민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확인 받으려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맞지? 언니 진짜 그 오빠한테 관심 없는 거 맞지. 진작 물어 볼걸. 난 괜히 혼자
걱정 엄청 했잖아. 그럼 내가 이번에 승재 오빠한테 초콜릿 줄 꺼야. 괜찮지?”

“그래. 난 진짜 아무 관심 없었어.”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앤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초콜릿 하나의 설렘과

초콜릿 하나의 웃음과

초콜릿 하나의 미소와

초콜릿 하나의 사랑?

거기까진 아닌 거 같았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민지 말대로 창피만 사고 끝날
지도 모른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눈길을 보냈어도 여전히 뭐가 그리 웃기기만
한지. 순수함에도 악의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 애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릴 기세로 초콜릿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다. 패배할시 나는 매우 내상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더 걸어볼만한 게임이다. 알미운 그 녀석을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만 놔둘 순 없는 일이다.

미꾸라지 같은 녀석...

이건 싸운 것도 아니고 안 싸운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진 것 보다 훨씬 더 컸다. 내가 몇 일 동안
초콜릿을 녹였다 부었다하면서 발품 팔아 박스까지 사서 준비했건만 그 녀석은
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손이 부끄럽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롤러장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심지어 내가 오빠라고 불러

세웠건만 대답도 없이 획 하고 나가버렸다. 초콜릿 박스를 열린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누가 쳐다볼세라 얼굴을 가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속이 상한건 나뿐이 아니었다.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 롤러장에 왔었어?”

“응... 아니 .. 그냥 너 없길래 바로 나와서 집에 왔어.”

“언니 나 오늘 완전 망했어. 히.”

“왜 무슨 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롤러장에서 승재오빠 기다렸는데 다른 애들이 말해주는데 잠깐 왔다 그냥 가버렸데.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 갈 오빠가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 봤지. 근데 이 오빠가 나오지도 않고 인터폰으로만 오늘 밖에 나갈 기분 아니라면서 그냥 가라는 거야.”

나는 아까 그 승재오빠가 잠시 나를 획 돌아보았다가 급하게 그 아이와 같이 나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너 가능하면 우리 집 근처로 와 줄 수 있겠니?”

“나도 지금 밖으로 나갈 기분이 아니야... 누가 왜 발렌타인데이를 화이트데이 앞에 놔둔 거야. 화이트데이가 먼저였으면 사탕 받아보고 생각해 봐도 될 일을 여자한테 너무 불리하잖아. 히힝.”

“그럼 내가 너희 집 앞으로 갈게. 나도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민지의 말대로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먼저 인 것은 여자의 품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 불순한 설계였다. 이럴 때 일수록 여자들끼리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 이게 뭐야? 언니도 초콜릿 준비했었어? 누구한테 주려고 한 건데? 혹시??”

“아니야. 내가 승재오빠는 아니라고 말했었잖아.”

“그럼 누군데? 아직 언니 손에 있는 거 보니까 언니도 전해주질 못했나보네?”

“그래 네가 괜히 오해 할까봐 우리 우정이라도 지키려고 내가 용기내서 창피해도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난 승재오빠한테 전혀 관심 없어. 사실 그 옆에 땅꼬마한테 줄려고 만들었어. 내가 약간 돌았었나봐?”

“지훈 오빠? 진짜?”

난 그때서야 그 땅꼬마 애의 이름이 지훈 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언니 전혀 난 생각도 못했네. 난 정말 언니가 승재오빠랑 관심 없다고 했어도 그래도 조금은 의심했었거든. 미안해. 근데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훈 오빠가 웬 말이야? 언니 진심이야?”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뭐 시작도 안 한거니까 오히려 잘 됐지 뭐. 그렇게 무감각한데다 눈치도 없고 깔깔대기만 하는 녀석이라니...”

민지는 잠깐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말을 했다.

“그 오빠가 약간 엉뚱한 건 있어도 꽤나 귀엽긴 하지. 누나들만 셋이라서 여자한테 관심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그전에도 몇몇 애들이 좋다고 시도했다가 그 오빠가 멍텅구리처럼 굴어서 다들 떨어져 나가긴 했었어.”

“그래? 원래 좀 그런 앤 가봐?”

“언니 그 오빠 생긴 거 봐. 누가 보면 갓 중 1 되었다고 해도 믿지. 아직 애야 애. 괜히 맘 끓이지 마.”

난 민지의 말과는 반대로 뭔가 다시 끓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런 애란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녀석 이었던거지?”

내가 직접 주는 방식은 나의 품위를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다. 그 대신 그 녀석에게 혼란스러워 할 시간을 일부러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연히 걸려들었다. 민지를 통해 초콜릿이 전달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나자는 말이 전달되었다. 설레여 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에도 이 천둥벌거숭이 녀석이 또다시 나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나는 상대를 파악한 상태다.

마주본 그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말은 갈피를 못 잡았다. 애써 만든 초콜릿을 다시 돌려주려 하는 게 내 성의와 정성을 무시하는 것 같아 괴씸하긴 했지만 별 일 아닌 것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애써 당당하게 돌아서서 가볍게 그 아이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을 때 그 아이는 손을 올리려다 말고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에 난 묘한 쾌감을 느꼈다. 어쩐지 민지가 말했던 것처럼 꽤 귀여운 구석이 있다.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그 애는 나더러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안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단둘이 남겨졌다.

“오늘은 애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네?”

그 애가 당황한 듯 말을 했다.

“그러게 다들 개학 준비로 바쁜 가봐.”

뭔가 불만이 많은 것처럼 원망하듯 이야기를 이어 갔다.

“내가 자연스럽게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다 어디 간 거야?”

자꾸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나타나지 않는 승재나 민지를 탓하는 모습이 독안에 든 미키마우스 같았다.

“오빠 오늘은 그냥 가자.”

오빠라는 말에 그 애는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한다는 말이..

“그렇까? 그럼 너 차 타는 곳까지 데려다 줄께.”

자기가 오빠니까 날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었을까? 아무튼 우리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맨날 까르륵 거리는 모습만 보다가 오줌 마려운 표정으로 나를 힐긋거리는 모습이 왠지 어색했다.

“오빠는 좋아하는 게 뭐야?”

“음..... 요즘엔 진화론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말이지. 원래 사람은 하이에나 처럼 시체 청소부였데. 근데 돌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뼈를 깨서 골수를

뼈 먹기 시작하면서 진화가 시작된 거래.”

“공룡 뼈는 크니까 골수도 엄청 양이 많았겠네?”

내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글쎄? 그게 같은 시대는 아닌데.... 생각해 보니 공룡이라면 골수도 엄청 많았겠네. 하하하 근데 그게 익룡 이라면 허탕이잖아. 내가 원시인인데 뼈를 깨봤더니 골수도 없고 꺾이야. 진짜 웃긴다. 하하하하.”

드디어 그 애가 웃었다. 나도 백 프로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따라 웃었다. 웃음보따리가 터졌는지 알 듯 말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배꼽을 잡았다. 나도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자지러도록 웃기를 따라했다.

그리고 우리는 집 앞까지 걸어와 버렸다.

큰일이 났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처음엔 나 같은 애를 두 달 동안이나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어느 정도는 과심해서 내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만난 건데, 내가 지금 뭔가에 단단히 걸려 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 겨울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걸었다.

“마지막 눈이라 더 아까운 것 같아. 그래도 다음 겨울에 우리 또 같이 걷고 있겠지?”

“그래? 너도 겨울이 제일 좋니? 나도 겨울이 제일 좋아.”

이 애는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눈이 오면 하루 종일 밖에서 산다는 민지의 말이 생각났다.

“아마 우리 둘 다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 가봐. 내년에는 겨울에 우리 둘 생일 축하 같이 해줄 수 있겠다. 올해는 오빠가 눈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말이야. 하하하.”

나는 예전 일이 떠올랐다.

“내가 오빠 제일 처음 만난 날이 언제지 오빠 모르지?”

“언제일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었겠지?”

“아니야. 눈 오는 날 오빠가 나한테 눈뭉치 던졌잖아.”

“아! 그게 너였구나! 정말 미안해.”

“그때 오빠가 만든 눈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야...에휴...”

“아 그거! 하하. 부끄럽네.”

그 애는 잠깐 뭔가 생각에 빠진 듯했다.

우리는 온종일 쏘다니다가 해가 뉘엿해질 무렵 집 앞에서 헤어졌다.

칫솔질을 끝내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 애였다.

“지금 창밖 좀 내다볼래?”

“무슨 일인데?”

창문을 열고 밖을 본 나는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번 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눈으로 만든 사람이 서 있었다.

“오빠~”

“전화 끊을게 잠만 기다려~”

어느 틈엔가 쏜살 같이 공중전화 부스에서부터 달려와 그 눈사람 앞에서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해 보이더니 예전에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사라졌다.

“오빠 기다려!”

“아니야 추워 내려오지 마. 난 간다!~”

몇 시간 동안 추위에 있었을 사람은 오빠였다.

내가 내려가서 몇 번 불러 보았지만 순식간에 오빠는 사라지고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 눈 조각을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긴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임에 틀림이 없었다. 몇 번이고 꺾고 붙이고 쓰다듬었을지 얼굴 표면은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인가 가슴 속에 왈칵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난 그만 완전히 걸려들고 말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다. 이젠 내가 안달이 나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며칠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율학습 보충수업까지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늦은 시각 집으로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아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야 전화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아빠는 엄마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났어?”

“글쎄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공평할 텐데 말이지. 내가 말하면 엄마가 화낼 수도 있을 거야.”

“왜 어쨌는데?”

“사실 엄마가 아빠를 먼저 좋아했거든. 그때 그런 게 흔치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꽤 용감한 여자였어.”

왠지 모르게 내 어깨가 으쓱했다.

“그럼 엄마는 아빠 어떤 점이 좋았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단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내 진짜 모습을 봐준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진짜 모습....”

난 나도 모르게 아빠의 말을 따라 해보았다.

“요즘 부쩍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 너도 뭔가 끌리는 사람이 생긴 게로구나.”

나는 배시시 웃어 보였다. 새침하게 숨기고 말 것으로 알았던지 아빠는 짐짓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어라? 진짜 생긴 모양이로구나. 아빠한테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난 잠깐 낮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직 몇 번 밖에 안 봤어. 그냥 알아가는 단계야.”

“그럼 나도 너에게 내 비밀 하나 알려 줄 테니 너도 나한테 그 애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래?”

“아빠 무슨 비밀이 있었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무슨 일인데?”

“나 저번에 만났던 그 아가씨랑 헤어졌단다. 물론 사귀는 것도 아니라서 헤어졌단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야.”

“엥? 왜? 할머니가 아시면 어찌려구.”

“네가 보기엔 어떻다고 생각했니?”

“나야 뭐 중요한가. 아빠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래 아마도 그 아가씨는 내 내면을 바라보기엔 아직은 힘들었나 봐. 물론 그게 그 아가씨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인생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매우 행운이란단. 난 이미 한번 써버린 거 같아.”

나는 아빠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막상 생각나지 않았다. 조용히 내방에 돌아온 나는 알뜰게도 아빠 걱정은 흩어져 버리고 그 애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너무 많이 기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법칙인가? 나의 화이트데이는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물론 캔디를 받지 못한 것이 분한 것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인 거 같았다. 아빠 말씀이 떠올랐다.

‘내면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것은 행운이란단.’

내가 아빠에게 지훈 오빠의 내면까지 알아봐 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나 보다. 차라리 내 서랍 속에 액자로 만들어 넣어 둔 지훈 오빠의 사진처럼 일단 깊숙이 숨겨 두고 있던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지훈 오빠에게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불편하면 체하기까지 했을까. 난 오빠의 강한 면에 끌리지 않았다. 오빠가 그런 면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오빠는 천진하고 섬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오빠에게 감당하기 힘든 자리에 얹혀 놓았던 거 같아 너무 미안했다. 지훈 오빠의 집에 전화를 했지만 자고 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밤늦게라도 전화해달라고 부탁드려 뵈지만 전화가 없었다. 무척 실망했을까? 아빠는 진짜 지훈 오빠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전화는 다음 날 월요일 밤이 돼서야 걸려왔다. 어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재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기다렸는데 참 다행이었다. 전화통을 꼭 붙잡고 있다가 벨이 울리자마자 받았고 수화기 넘어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 밤늦게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전화를 못 했어.”

“바보네. 어제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는데. 오늘 수업도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다구.”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네.”

“근데 어제 정말 불편했지? 나도 오빠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 미안해. 근데 우리 아빠가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아니야. 당연히 걱정 되시겠지. 공부도 꼭 열심히 하라고 조언하신 것 뿐이야. 우리가 더 잘하면 다 해결될 일 아니겠어?”

“그래,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릴 거야. 그러면 아빠도 좋아하시겠지?”

우리는 전하지 못한 캔디 얘기를 하며 깔깔 웃었다. 우린 한 번에 제대로 전달되는 게 없는 사이였다. 정말 지훈 오빠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그리고 아빠에게 지훈 오빠 어땠냐고 굳이 물어보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우린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었다. 오빠 말대로 학구열이 불타올랐다. 물론 일요일 오빠에게 건네받을 사탕 생각에 설레어 오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하룻길에 바로 오빠랑 일요일에 다닐 도서관을 알아보았다. 물론 오빠랑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다행인 것은 지훈 오빠는 공부를 꽤 잘한다는 것이었다. 지훈 오빠가 공부를 꽤나 한다는 것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초콜릿까지 올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게다가 지훈 오빠는 어쩌면 설명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물론 오빠 공부를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오빠가 설명해준다면 머리에 안 들어올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확정적이었다. 언제 전화하나 참기 힘들어질 즈음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가 우리 집에 전화하는 것은 아빠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질 것을 알기에 오빠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난 짐짓 새침하게도 빠진 척을 했다.

“우리 일요일 말고 토요일날 볼까?”

오빠의 제안에 반색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쉬우면 안될것 같았다.

“čit. 또 내가 보채서 보는 거처럼 될 테니까 그냥 원래대로 일요일에 만나.”

“아니야 진짜 내가 너 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됐다. 그럼 토요일엔 지난주 화이트데이때 가려다가 못간 생과일 카페에 갈 수 있고 일요일엔 도서관을 갈 수 있다. 완벽했다.

그날 밤 나는 오빠와의 통화를 다시 떠올렸다. 미묘하지만 오빠의 목소리가
지난번 화이트데이때 아프고 난 뒤부터 힘이 좀 없었다는 게 생각이 났다.
아직도 좀 아프는가? 고등학교 적응이 좀 힘든가?

설마 아빠가 하신 말 때문에 지훈 오빠가 무슨 상처라도 진짜 받은 건 아닐까?
하지만 난 아빠에 대한 믿음을 거둘 수는 없었다. 왜냐면 아빠는 지훈 오빠가
다니는 학교의 총동문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내가 지훈 오빠 학교생활에
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다. 지훈 오빠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바라봐 주고 계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빠가 무슨 힘든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아빠, 어제 내가 지훈 오빠랑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지훈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해. 애써 괜찮은 척하는데 끊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네. 남자 고등학교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던데 지훈 오빠는 아직 애같이
여리고 섬세하거든...”

아빠는 뒤돌아서 넥타이를 묶고 계셨다. 내 물음에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자켓을 입으시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좀 피운 거 같더구나.”

맞다. 아빠는 쪽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지훈 오빠가 말썽을 피우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말썽을 피우다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다. 고등학교는 엄격한 곳이니 조금 실수해도 체벌도 받고 그러는 거지.
지훈이도 이제 고등학생이니 예전처럼 주위에서 다 받아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거야. 그리고 아빠가 너 때문에 지훈이 담임선생님과 연락은 몇 번 했지만 결국
지훈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거야.”

아빠는 서류가방을 챙기시더니 이른 출근길을 재촉하셨다. 웬지 나에게도 차갑게
느껴지는 건 기분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유달리 안아주시지도
않고 출근하는 모습이라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다고 아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다.

오빠는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훈 오빠의 집으로 전화해 봤지만
낮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학교로 가본다거나 집으로 간다면 지훈 오빠랑 길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한 시간이 지나자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빠의 집으로 전화를 다시 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며칠 전 아빠의 말씀이 좀 차가웠기에 주저되는 것은 있었지만 이제 남은 건 아빠에게 연락하는 방법뿐이었다.

“알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볼 테니 30 분 후에 다시 전화하렴”

30 분이 3 시간처럼 느껴졌다.

“흠.... 집에 가서 있거라. 오늘 지훈이는 오지 못할 거야.”

“아빠 무슨 일인데? 사고라도 난 거야?”

“오늘도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친 모양이구나. 사고는 사고지.”

“또 무슨 일인데? 왜 자꾸 지훈 오빠 괴롭히는 거냐구.”

“너 이 녀석 말을 함부로 하면 못써. 어쨌든 지훈이는 오늘 학교에서 반성문 쓰고 늦게나 집에 갈것 같다고 하니까 넌 집으로 빨리 들어가 있어라.”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전화기가 일방적으로 뚝 하고 끊겼다.

나는 순순히 아빠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지훈 오빠 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화강암 아치가 괴물 입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보였다.

“저기 누구신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위아저씨가 나를 막아섰다.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깡마르신 노인이셨다.

“동생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아서 찾으러 왔는데요.”

왠지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았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다들 하교해서 학교에는 자율학습하는 애들 정도 남아 있을 텐데요. 아직 해지려면 멀었는데 학교에서 좀 놀다가 돌아가겠죠.”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사실은 동생이랑 수업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오질 않아서 제가 데리러 온 거예요. 정신을 놓고 다니는 애라서 약속을 해도 깜빡깜빡하는 애거든요.”

이 정도 거짓말이라면 지훈 오빠를 빼서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았다.

“아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연락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뭔가요?”

수위아저씨는 내선 전화를 돌려 한참이나 통화를 하시더니 수위실 밖의 나를 난처한 눈으로 바라보며 전화를 끊었다.

“이걸 어쩌나, 지금 지훈 학생이 학생지도실에서 뭔가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저녁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데.... 어찌지요?”

“가족이 왔는데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건가요?”

“저도 뭐 설명은 했는데 남자 고등학교라는 게 워낙 엄격한 곳이라, 누님은 걱정하지 말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지훈 학생은 학교에서 잘 보호하고 있다가 지도가 끝나면 귀가시키겠습니다.”

손녀뻘 되는 나에게 굽신거리며 꼬박꼬박 존대하시는 그분을 더 이상 뉘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다시 지훈 오빠의 집으로 급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으로 와본 지훈 오빠의 방은 다락에 있었다. 허리를 펴서 일어서기엔 부족한 천정에 얹은뱅이 책상과 책꽂이가 놓여 있었다.

“좀 우습지?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지훈이가 다락방을 쓴단다. 그래도 남자아이가 우리 집엔 딱 하나라서 그래도 개인 공간 마련해 준거야.”

“아니요. 괜찮아 보여요. 지훈 오빠가 딱 좋아 할 것 같은 공간인데요.”

맞다. 다락에는 그동안 지훈 오빠가 나에게 들려주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다. 공룡, 우주왕복선, 헬리콥터, 그리고 고등학생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장난감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아 이거? 지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거야. 요즘엔 더 이상 모으진 않아. 그래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단다.”

내 흔적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아서 둘러 보았지만 생각해 보니 오빠가 내가 준 초콜릿박스를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았다. 내 서랍 속의 오빠 사진처럼 어딘가 서랍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럼 여기 지훈이 방에서 좀 쉬고 있어. 도대체 몇 시간을 밖에서 헤메고 다녔니. 내가 방해되지 않게 나가 있을 테니까 네 방이라고 생각하고 한숨 붙이렴.”

친절한 언니의 위로에 나도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이 이완되고 있었다. 언니가 나가고 나는 지훈 오빠가 썼을 이불을 살짝 덮어 보았다. 이상하게도 우유 냄새가 났다. 난 그 냄새가 좋아서 살짝 몸을 눕혀 봤다. 그러자 얹은뱅이 책상 아래에서 우유갑을 꼭꼭 눌러 쌓아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살짝 몇 개를 빼보았다. 남의 서랍을 열어보는 것은 확실히 실례이겠지만 우유갑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우유갑 하나에서 지훈 오빠가 썼을 글귀가 있었다.

‘하루에 우유 한 통 그리고 줄넘기 백 개씩이면 나도 키가 커지겠지?’

뭔가 다짐이라도 하는 듯이 써놓은 그 글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다시 이불에 코를 대고 우유를 냄새를 맡았다. 얼마나 마셨으면 몸에서 우유 냄새가 날까? 나는 스르르 잠에 빠지고 말았다.

많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지훈이 체취에 취했는지 나는 언니가 깨우러 올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어?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래 잤죠? 지훈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시간은 벌써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다.

“저녁밥 먹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곧 엄마도 올 시간이라 네가 불편 할꺼야.”

더이상 마냥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민폐일 거 같았다.

“죄송해요. 언니. 언니 말대로 오빠한테 꼭 전화해달라고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을 지나 내방으로 향했다. 아빠는 무슨 중요한 통화가 있는지 내가 기척을 못 느끼신 것 같았다. 침대에 털썩하니 누워서 천정을 멍하니 바라다보았다.

“그렇게 나빠 보이는 애는 아니던데....”

아주 작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통화 소리에 나빠 보이는 애란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살금살금 아빠 서재 문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무슨 말씀을 그리 오래 듣고 계신지 실망스럽게도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될 텐데.... 그런 아이인지는 잘 몰랐군요. 그래도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없을 나이이니 애비된 입장에서 잘 타일러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매번 죄송하네요.

아빠가 전화를 끊으려 하는 것 같아 냉큼 내 침실로 들어가 누워 이불을 둘러썼다.

“애비야. 애가 왜 이렇게 늦냐. 네가 어디라도 나가봐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게요. 제가 좀 이 앞에라도 나갔다 와볼게요.”

“그래, 어두워지니까 네가 한번 둘러보고 와야겠다. 혹시 친구 연락처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든지.”

“어? 여기 신발이 있네요? 언제 들어왔지?”

아빠가 급하게 내 방문을 노크하더니 문을 불쑥 열었다. 나는 얼굴까지 이불을 당겨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언제 온 거니? 걱정 많이 했단다.”

아빠는 의자를 당겨 내 침대 옆에 앉으셨다.

“오늘 실망할 일이 많았나 보구나.”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이 내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짜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평생에 한 번 오는 행운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상처 받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는 거야. 그 한번 오는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누워 있기만 했다.

“그래 오늘은 무척 힘들었을 테니 좀 쉬도록 해라. 할머니한테 식사는 부탁해 놓았으니 조금 있다가라도 배가 고프면 챙겨 먹고.”

아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

아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빠가 그 애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그 내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몰래 다시 집을 빠져나왔다.

오빠의 집 앞에 쭉그려 앉아 있는 지 얼마나 되었을까 저만치에서 오빠의 모습이 보였다. 오빠는 나를 발견하자 잔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털썩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힘들었을 사람이다. 그저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오빠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오빠가 가방을 주섬거리더니 박스하나를 꺼냈다. 찌그러져서 엉망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캔디들도 깨진 게 많았다. 오빠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다.

“캔디 상태를 보니 어둠의 동굴 속 불 뿜는 용을 해치우고 왔구나. 그러므로 나의 기사여, 나를 기다리게 한 죄가 크나 이 공주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제야 우리는 웃었다. 내 가슴 안쪽에서는 불덩어리 같은 것이 끓어 오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빠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런 사탕을 받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존재였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순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갈 거니까. 우리는 시내에 있는 생과일 카페로 가기로 했다. 오빠가 늦는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그 무엇에도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행복감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과 몇 분 만에 깨어지고 말았다. 버스를 타로 큰길로 나왔을 때 절뚝거리는 오빠의 허벅지에 피가 번져 들러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폭발했다.

“오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진짜!”

“아,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빠, 무슨 소리야. 아앙, 속상해. 어떻게 이래?”

나는 오빠를 벤치에 앉혀 놓고 급하게 약국을 찾아 소독제와 소독솜들을 사서 나왔다. 오빠는 허벅지가 많이 아픈 듯 벤치 끝에 걸쳐 앉아 있었다. 소독약을 사 오긴 했는데 어떻게 소독을 할지는 막막했다.

나는 근처 공원 어두운 곳으로 오빠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빠의 상처를 소독해주었다. 그리고 오빠에게 입을 맞추었다.

할머니는 집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다.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아빠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너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나 쉬고 싶어.”

“그래그래 별일 없었지... 아이고 참... 이게 별일 없는 일은 아닐 테고... 어쨌든 밤이 늦었으니 어서 올라가서 자자꾸나.”

“할머니 고마워요.... 내가 내일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그래그래 우리 손녀가 절대 나쁜 일에 빠지고 그럴 애는 아니지. 할미는 믿는다.”

나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웠고 할머니는 내 외투와 양말만 벗겨 주셨다.

“그래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거라.”

할머니는 이불을 당겨서 덮어 주시고 불을 끄고 방을 나가셨다.

첫 키스를 한 날이 이렇게 슬픈 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온몸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아빠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서둘러 쉬쉬하듯

“아까 들어와서 지금 잔다. 내버려 뒀다. 힘들었을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서 너도 좀 자라. 괜히 깨워서 시끄럽게 하지말어.”

“알겠어요. 어머니도 이제 주무세요.”

“그래그래 잘 생각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차분히 잘 타일러서 말하렴.”

다음 날 아빠는 단호하고 엄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자정이 돼서 들어온 네 행동은 잘못된 거야.”

아빠와 나는 소파에 마주 앉았고 할머니는 주방에서 소일하고 계셨다.

“어차피 내가 나간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실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도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진짜 내면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어서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단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투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해.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 아빠도 더 이상 용납할 순 없단다.”

“어차피 아빠도 근거 없는 말에 휘둘려서 오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화이트데이 때 지훈 오빠 만났을 때부터 오빠에게 만족해하지 않으신 거 저도 다 알아요. 지훈 오빠 담임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지훈 오빠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애가 나쁜 애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하지만 지금 너희들 행동은 정말 제멋대로구나. 이제 어른들 말씀도 무시하려 하니 너답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방에 들어가서 다 찌그러진 캔디박스를 집어 들고 다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캔디박스를 탁자에 탁 내려놓고 열어 보았다.

“이게 어제 지훈 오빠가 허벅지에 피가 나도록 맞은 이유라면요?”

아빠는 당황하신 듯 얼어붙었다. 할머니도 깜짝 놀라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다 깨어진 캔디들과 찌그러진 상자를 한참이나 쳐다보셨다.

“아니 어쩔 어떻게 때리면 허벅지에 피가 난다니? 이게 말이 돼? 아이구야... 애비야 이게 말이 되니?”

아빠는 매우 난처해 하시더니

“그래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내가 다시 알아봐야겠구나.”

“그래 그래야지. 우리 손녀 사탕 상자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네. 이거 누가 그랬겠어? 지훈이가 스스로 그랬겠니? 네가 좀 뭐라고 항의 좀 해라.”

“신 선생도 나름 교육자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이래라 저러라 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넌 지금 네 딸내미를 믿니 학생 허벅지 피날 때까지 후려치는 선생을 믿니? 지훈인가 자기 아버지도 안 계신 데 그 집에서 항의하기도 힘들 거고... 이건 우리 손녀도 피해자야.”

할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꼭 무슨 일인지 물어볼게요.”

“야 이 녀석아 뭘 물어봐. 따끔하게 경고를 해 경고를....”

“그래 봤자 지훈이만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흠.... 그래.... 애비 말도 맞다. 어쨌든 잘 알아서 원만하게 이야기하렴.”

월요일이 되었다. 나는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 오빠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미안한데 당분간 지훈이랑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집으로 전화하는 것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유를 물어볼 새도 없이 지훈 오빠의 언니는 전화를 끊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같았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와 아빠는 거실로 들어서는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심각한 얼굴이었다. 뭔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가 이 할미 곁으로 오거라.”

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오늘 지훈이가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구나.”

아빠는 아주 짧게 대답하셨다.

“난동이라니요. 그럴 리가요. 그 선생님이 또 지훈 오빠한테 손댄 거예요?”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 애만 너무 믿으려 하면 안 돼. 학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까지 다 보는 가운데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나는 순간 말이 턱하고 막혔다.

“어쨌든 이 일은 아빠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너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결과는 결국 이거였어. 너도 마음 잘 추스르거라.”

아빠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가 문들 닫으셨다.

할머니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에이그... 불쌍한 것... 괜찮다. 괜찮아.... 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야. 아빠 말씀 잘 새겨듣고 너도 이제 아이는 아니니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 괜히 경거망동했다가는 그 애한테도 너한테도 모두에게 다 좋지 않아.”

과연 교무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숲속의 정령들이 당신의 군사요. 아이기스가 될지니 두려워하지 마오, 나의 기사여.” 내가 오빠의 상처를 소독해주던 밤 꼭 껴안고 귀속에 속삭였던 말이 내 머리를 맴돌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지훈 오빠가 그럴 사람은 아녜다. 도대체 아빠는 그 날 아침에 그 선생님에게 체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를 하신 게 맞은 걸까? 아니면 괜히 그게 선생님들 더 자극했을까? 어느 한쪽 편으로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교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알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다만 내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란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짐이 그대의 미카엘이 되어 나아가니 적들은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될지어다.”

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너무도 무력했다.

똑똑

아빠가 앉아 계시는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들어 오거라.”

아빠는 창밖을 응시하며 돌아앉아 계셨다.

“아빠 내가 지훈 오빠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그 것처럼 막무가내로 뛰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이네 집도 지금 네가 매우 걸끄러울 거야. 당연히 그쪽에서는 지훈이가 너 만나고 나서 엇나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니?”

나는 지훈 오빠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화끈거렸다.

“지훈이도 지훈이 나름대로 자초지종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이건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일이야. 지훈이가 너를 만난다고 한들 지금은 근신해야 할 때이지 자기변명을 할 때가 아니란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그렇지만 아무리 지훈 오빠가 큰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한 명쯤은 지훈 오빠 말을 들어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되잖아요?”

“넌 지금 지훈이에게 폭 빠져 있는 상태야. 지훈이의 자초지종을 네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판단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 아마도 퇴학을 맞게 될 거다.”

퇴학이란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도 지훈이가 퇴학까지 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단다. 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내가 괜히 자꾸 개입해서 지훈이 담임선생님이 반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단다. 지금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할 시간이야.”

나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아빠 말에 하나 틀린 게 없는 거 같았다. 나도 거기에 한몫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너 아빠에게 약속 한가지 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지훈이 퇴학만은 막아 볼 테니 너도 이제 고집은 그만 부리고 그 애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나에게 거래를 제안한다는 것이 무척 무섭고 차갑게 느껴졌다.

“넌 남자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서툰 사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단다. 결국, 그 경험과 실패들이 쌓여서 성숙해 가는 거지. 지훈이에게 너는 버거운 상대일 거야. 그 애도 이번에 반성하고 느끼면 더 성숙해지겠지. 그동안 그 애에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그리고 사람이란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그 결과에 대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훈 오빠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지 정작 지훈 오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화나는 것은 지훈 오빠를 보호하는 상대가 다름 아닌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에게서 지훈 오빠를 보호해야 한다니....

아빠가 나를 데리고 등하교를 하시기 시작했다. 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아빠에게 순응하였다. 일단 지훈 오빠의 퇴학만은 막아야 했다. 다정한 아빠는 이제 끝난 것 같았다. 우리는 거래 관계로 엮어져 있었다. 학교 공중전화로 지훈 오빠 집에 전화했다. 없는 전화번호였다. 두 번 세 번 해도 똑같았다. 나 자신에 혐오감이 밀려왔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피한다는 느낌은 태어나서는 처음이었다. 어쩌면 아빠의 말대로 지훈 오빠는 내가 버거웠는지도 모른다.

“오늘 지훈이 퇴학 처분이 취소됐단다.”

하룻길 아빠의 차에서 무심코 창밖만 바라보던 내 귀가 번쩍 띄었지만, 짐짓 아무런 느낌이 없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 겨우겨우 막아 놓은 거니까 다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거 잘 알겠니? 나도 너도 그리고 지훈이네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단다. 퇴학이 취소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 그 애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나는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아빠에게 물었다.

“지훈 오빠 만난 거예요?”

“그렇단다. 당분간 너와 만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하더구나.”

나는 한 번도 지훈 오빠에게 아빠가 그 학교 총동문회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 학교에서 아빠의 존재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에 지훈 오빠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이 되었다. 내가 지훈 오빠에게 뭔가 속인 게 돼버린 거 같아 머리가 복잡해졌다.

통제의 핵심은 눈을 가린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가려진 길 위에 서 있다.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고 그 끝에는 자기 혐오와 무력감뿐이다. 나는 편지를 쓰기로 걱정했다. 그리고 민지를 통하면 아마도 전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답장은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되도록 끝내 오지 않았다. 통제가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아빠 사무실에 좀 전해드리고 와라.”

할머니가 쇼핑백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이제 제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터였다.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속옷이라도 갈아입으라고 전해라. 알겠지? 그리고 너도 너무 아빠한테 차갑게만 하지 말고 이런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아빠랑 전처럼 시간도 보내고 하렴. 점심시간 맞춰가면 아빠가 아마 맛있는 것도 사주시겠지.”

나는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부탁이고 해서 길을 나섰다. 요즘 아빠는 사업이 바빠지셨는지 나에 대한 통제도 조금은 느슨해진 상태였다.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 참으면 다음 한번은 좀 쉽게 참아진다.

사무실 문을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이름하나가 있었다.

“지훈 학생은 요즘 좀 어떨까요?”

나는 멍칫하고 귀를 최대한 가까이 댔다.

“그 녀석 뭐 변하겠습니까? 애초에 내가 학년 초부터 글러 먹은 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떼어내서 다행이지. 적당히 넘어갔더라면

지금쯤은 더 골치가 아파졌겠죠. 따님은 요즘 좀 어떨까요?”

“허허 사춘기 여자애들이 다 마찬가지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그 일이 있고 그런 뒤로는 찬바람만 분답니다.”

“어린 애들이니까 잠깐 불불다가 안 보면 다 그냥 또 그대로 잘 지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지훈 학생이 공부는 꽤 했는데 학업은 어떨까요?”

“중학교 때 성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등학교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문회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면 다행일 텐데 이 배은망덕한 놈은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다 제 팔자지 어떡합니까.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회장님 새장가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신데 그런 싹수없는 애는 미리 차단한 게 다행이지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남자 고등학교 담임을 한 십 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정말 어떤 녀석들은 매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허허허.”

나는 손이 덜덜덜 떨렸다.

대화가 끝나가는 것을 눈치챈 나는 골목 사무실 입구에 숨어서 아빠와 선생님이 헤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아빠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를 건네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다.

어쩔 수 없이 민지에게 다시 전화했다. 민지에게는 미안한 점이 많았다. 편지가 잘 전달된 것이 맞은 지 몇 번이고 물어본 것이 민지는 매우 불편한 것 같았다.

“언니가 알아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자세히 말 못 했어. 사실 승재 오빠랑 지훈 오빠랑 대개 심하게 싸웠대.”

“왜? 둘이서 나 때문에 싸운 거야? 혹시?”

“언니 사이에 두고 싸운 건 아니고 승재 오빠가 언니 때문에 지훈 오빠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믿고 있어서 지훈 오빠한테 언니 욕을 좀 했나 봐.”

지훈 오빠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줬다는 게 놀라웠다.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편지는 전달된 거로 알고 있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승재 오빠 새끼 손가락 부러진 거 있지? 내가 알기로는 진짜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말해봤자 승재 오빠가 언니 만나 줄 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네가 혹시 나 대신 지훈 오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승재 오빠도 지훈 오빠 안 만난 지 몇 달은 지났으니까 요새 어떤지는 모를 거고 어휴~ 그냥 그때 퇴학을 당하는 게 나았지. 언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교무실에서 그 난리가 나고 다시 그 선생님 밑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떤 걸지. 누가 뺨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잡아 먹히라고 사자 우리에 다시 처넣은 거 아니겠어?”

나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자 우리로 다시 밀어 넣는 대가로 나는 지훈 오빠랑 헤어지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단 말인지.

오빠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야 해.... 이제 아빠도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었다. 아니 딱 한사람 믿은 사람이 있긴 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에구머니..... 이를 어쩐다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닐 거야.... 그건 그렇고 너도 그 애도 불쌍해서 어쩐다니.... 애비가 그럴 사람은 아니란다.... 쫓쫓쫓....”

할머니는 갈팡질팡 혼란해 하시며 말씀하셨다. 밤이 돼서 거실은 무거운 공기로 짓눌려 있었다.

“애비야.... 이게 모두 사실이 맞는 거냐?”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랬겠어요. 단지 우리 애를 좋아하는 지훈이에 대해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런 것뿐이지. 애초에 맘에 안 들어서 애들 그렇게 몰았다니요. 그건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요.”

“내가 애비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학생이래도 피가 허벅지에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선생,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선생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애를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애가 참다 참다 그런 일을 저질렀을꼬.”

할머니 말을 듣고 있는 내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에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비 너 빨리 학교에 가서 그 아이 반을 바꾸든지 전학을 시키든지 원상태로 돌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천벌을 받아.”

“어머니 애 앞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싸고도니까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그 애 살려내려고 이사회까지 가서 굶신거리고 담임 선생에게도 지훈이 잘 챙겨 달라고 만난 거야. 오늘도 그런 자리였단다. 근데 어떻게 제멋대로 그렇게 아빠란 사람을 매도할 수 있는 거니. 너 정말 실망이구나. 퇴학만 면하게 해주라고 사정한 사람이 바로 너 아니니? 그런데 내가 사자 우리로 밀어 넣었다고?”

“헤어지면 퇴학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 아빠가 먼저였잖아!”

아버지는 나를 쏘아보았다.

“그래 퇴학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해라. 지훈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지? 인제 보니 너야말로 멋대로구나. 지훈이는 지금 참고 견디고 있을 거야. 어머니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티고 있겠니? 근데 너는 네가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저렇게 하자고 했다가 모든 게 네 맘이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모두 아빠랑 그 담임선생님이랑 다 짜고 그런 거잖아.”

아버지는 얼굴이 폭발할 것처럼 빨개지시더니 주먹을 짝 쥐셨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난 너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너에게 조금만 해가 갈 것 같으면 소개받은 여자들도 다 쳐냈단다. 내 모든 기준은 너였어. 하지만 이젠 아닌 거 같구나.”

아빠는 무겁게 몸을 일으키시더니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에구머니나.... 어이구....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할머니가 가슴을 치셨다.

나는 당장 지훈 오빠를 찾아 나섰다. 일요일 저녁이라 오빠가 집에 있을 것이다.

“너 어찌려구 여기까지 왔어?”

하필이면 골목 어귀에서 지훈 오빠 언니와 마주쳐 버렸다.

“지훈 오빠 만나려고요. 오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집에 없단다. 그리고 너 집에서 걱정할 텐데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지훈이도 마음 잡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단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자.... 언니 이야기 잘 들어. 너희들은 아직 어려. 그리고 지훈이는 너보다 훨씬 더 어리단다. 지훈이가 너보다 한 살 많다고 무조건 오빠는 아니야. 지훈이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훈이는 너 감당 못 해. 아직 애기라구.”

“지훈 오빠 이렇게 된 거 다 내 책임이에요. 흑흑흑.”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언니는 나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아니야. 그런 생각 할 거 없어. 우리 다들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힘 많이 써준 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 지금은 참고 견디는 시간이야....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설명해줄 거란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몽니를 부릴 수는 없었다. 지훈 오빠에게 내가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자면 아빠 말대로 기분대로 나온 것이다. 아니란 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선 안 되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아빠 저 검정고시 불래요.”

“이제 너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기 싫구나. 검정고시라니 참.... 어이가 없구나.” “아빠 미워하거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아빠 힘 이용해서 지훈 오빠 가지고 논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 인생 물병 안에 가둬 놓은

물고기처럼 쳐다보며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표현이 너무 강했는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도 아빠 인생을 찾아요. 나도 아직 아빠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이고 그런 존재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아빠 품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제멋대로인 거고요. 검정고시도 제멋대로 결정하는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선택해서 제가 책임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계속 망치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니? 지훈이 때문인 거겠지? 지훈이는 참고 견디고 있는데 지훈이 퇴학 막고 너는 자퇴하겠단? 그게 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넌 아직 멀었구나. 아직 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애야.”

“아빠가 하라는 데로 지금까지 다 따랐어요. 그럼 이번엔 처음으로 내 결정으로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울 순 없어요. 저도 아빠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머무를 순 없어요.”

아빠는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아 며칠을 아무 말씀 없이 서재에서만 머무르고 계셨다. “이게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냐? 검정고시라니?”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아이 결정이니 저도 허락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애비야.”

며칠 숙고하시는 것 같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논쟁도 없이 결정하시는 걸 보며 나는 짐짓 놀라웠다.

“어차피 저도 사업 때문에 이곳에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내년 정도는 서울로 우리 모두 거처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어차피 전학을 해야 하니까 한 해 정도는 우리 애 몸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는 휴학으로 하고 자기가 다니고 싶다는 검정고시 학원 1년 정도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서울로 이사, 그리고 전학이라는 말이 몹시 거슬렸다.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

따지는 건 좋을 게 없었다.

“아빠 제 결정 존중해 주셔서 고마워요. 잠깐 하다 말 것 아니에요. 꼭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래야지.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애비도 잘 결정했다.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것만 잃지 않으면 돼.”

아빠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막상 큰소리는 쳐 났지만 이렇게 쉽게 손아귀를 벗어나니 너무 큰 책임감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우선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 오빠를 만나기 위해 저녁마다 지훈 오빠 집 앞에서 몰래 서성거렸다. 하지만 지훈 오빠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훈 오빠가 나를 피해 다니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살짝 외진 곳에서 지훈 오빠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훌쩍 커버리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확실히 지훈 오빠가 맞았다. 역시나 지훈 오빠는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들어서기 전에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훈 오빠를 붙렸다. 그리고 꼭 껴안았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훈 오빠를 붙렸다. 그리고 꼭 껴안았다. 우유 냄새가 났다. 난 잠시 그대로 머물고 싶었지만, 오빠가 깎지 낀 내 손을 풀어냈다. 그리고 나를 담쟁이 넝쿨 그늘 쪽으로 이끌었다. 담쟁이 그늘에 가려진 얼굴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감기에 걸려서 그래. 가까이하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져 있자.”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못 보는 것이 무척 서운하기는 했다. 지훈 오빠는 그사이 키가 훌쩍 커져 있었다. 오랜만에 봤지만, 우리의 만남은 슬프게도 말다툼으로 끝나 버렸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준비해 간 검정고시 학원 안내서는

여기저기 흠뻑려져 물에 젖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시작되었기에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퇴학을 면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다시 검정고시 이야기를 꺼냈으니 아무리 지훈 오빠라도 화가 날만 했다. 하지만 지훈 오빠는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

오빠를 꼭 안아주고 뒤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오빠는 나를 잡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빗물이 내 눈물과 섞여서 온 얼굴을 적셨다. 어깨가 들썩거리려 했지만 애써 참았다.

오빠는 오빠 방식으로 견뎌 내고 있다. 그것마저 내가 구해주겠다고 교만을 떨려 이곳까지 온 것은 아녘다. 난 같이 싸워주고 싶었지만, 오빠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다. 지훈 오빠를 어항 안에 가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다. 나는 제안을 했고 오빠는 자기 선택을 했다. 오빠는 성장했다. 물론 이 사태를 불러온 책임도 나에겐 어느 정도 있고 그 책임은 또 내 나름대로 져야 한다. 오빠가 내 손을 뿌리쳤지만 난 실망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견디고 있었다. 내가 가는 길 위에 같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이겨.... 이겨 냈으면 좋겠다. 나도 내 길 위에서 이겨 낼 것이다. 결코, 쉬운 방법으로 이겨 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나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나를 써주는 곳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휴학한 뒤로 학교에는 흥흥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가출해서 학교를 그만뒀다느니 연애문제로 아빠랑 완전히 틀어졌다느니 이상한 업소에 취직했다는 식의 소문이었다. 나를 시기하던 애들이 많았던 만큼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에게 중요한 일은 아녘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 겨울 아침 공기는 살을 에듯이 차가웠고 신문 배달 할 땐 신문 놓지 말라는 고함도 감당해야 했다. 세상은 그렇게 친절한 곳은 아녘다. 학원이 끝난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했다. 홀 서빙이 안 돼서 뒤꼍에서 불판을 닦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과가 있었다. 난 그래도 오빠를 관찰했다. 오빠는 많이 지쳐 보였다. 오빠가 지나는 길목에 그늘에 조용히 숨어 앉아서 오빠를 보는 것이 내 중요한 일과였다. 자주 가보지는 못했고 가도 못 볼 때가 많았다.

겨울 방학이 되자 오빠를 볼 수 있는 날도 더 줄어들게 되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그해는 첫눈이 유달리 늦게 내렸다. 우리가 다시 건자고 한 그 첫눈 길이었다. 나는 웬지 오빠가 우리가 걷던 그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추울 것을 대비해서 뽕뽕 싸매고 우리가 걷던 그 길로 가보았다. 오빠는 그곳에 서 있었다. 당장 달려가 안고 싶었다. 저번에 민지가 내가 일하는 곳에 왔을 때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지훈 오빠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오빠의 모습이 물아래로 가라앉아 출렁거렸다. 내 눈물 때문이었다. 나는 한참이나 오빠 뒤를 먼발치에서 따라 걸었다. 오빠는 끝내 나를 보지 못했지만, 그날 우리는 한참을 같이 걷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

검정고시 학원을 늦가을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해에는 검정고시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일 년을 더 공부해서 다음 해에 검정고시 학원을 통과했다.

“정말 해내는구나. 장하다. 이런 게 내 손녀지. 그동안 할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알기나 하니?”

“할머니 고마워요.”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 출신 뭐라 한다더니 내 손녀 보니까 그냥 졸업장 따는 거 보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할미가 이제 깨달았구나.”

아빠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게 뭐 졸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 축하 꽃다발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단다.”

나는 꽃다발을 받아 들고 아빠를 쳐다보았다. 머뭇거리다 아빠에게 말을 건넸다.

“아빠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믿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아빠를 살짝 안아주었다. 아빠의 어깨가 살짝 들쭉거렸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이렇게 이겨내다니 부끄럽고 고맙구나.”

아빠의 눈물을 보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아빠는 마치 그러지 않았다는 것처럼 재빠르게 말을 돌렸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자고요. 저도 얼른 준비할게요.”

라고 하시며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셨다

우리 집은 아빠의 말씀대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나도 서울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 딱 하나 걸리는 것은 지훈 오빠였다. 내가 며칠 동안 말없이 우울해하는 것을 할머니가 눈치채신 것 같았다.

“그 지훈이 서울 가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니?”

“아니예요. 오빠 흔들고 싶지 않아요. 물론 보고 싶지만 참을래요.”

“이제 점점 잊을 때도 된 거 같은데 할미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미안하다.”

“아뇨. 오빠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나 오빠 때문에 검정고시 끝까지 해낸 거예요. 난 작은 거 하나 해낸 거고 오빠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길에 있어도 이길 거라고 했으니까 오빠가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다가오시더니 나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아빠랑 누구 좀 만나고 오면 어떻겠니?”

“누군데요?”

“오늘 하루만 오해하지 말고 아빠 하자는 데로 해주지 않겠니?”

“그래요 알았어요.”

아빠와 나는 시내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마 지훈 오빠는 아닐 거지만 어쩐지 떨어왔다. 하지만 아빠에게 누굴 만나느라고 캐묻지 않았다. 아빠가 하신 말씀대로 오늘은 아무런 오해도 판단도 하지 않고 아빠가 하시자는 데로 하고 싶었다.

“아이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훈 학생 학부모님 역할 하신다고 들었는데 상담 안 할 이유도 없지요.”

아주 낯선 아저씨 한 분이 오셨다. 인상이 매우 험악한 분이셨다. 목소리도 굵고 어쩐지 위압감이 물려왔다. 하지만 지훈 학생 학부모 노릇이라니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이쪽은 제 딸입니다.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한답니다.” 검정고시를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분은 매우 놀라는 눈치였다. “검정고시라고요? 아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밖이네요.”

“그것도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자기 손으로 학원비도 다 스스로 마련해서 합격한 거랍니다.”

아빠의 자랑은 끝이 없을 거 같았다. 나는 살짝 아빠 옆구리를 찔렀다.

“아 참 오늘은 그 이야기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허허허.”

“제가 지훈 학생 생활 기록부를 꼭 잘 봤습니다.”

확실히 지훈 오빠 이야기가 또 나왔다. 귀가 쫑긋하게 세워졌다.

“지훈 학생이 들어 올 때 성적은 좋았는데 1학년 때 뚝 떨어지더니 2학년 때는 더 떨어졌어요.”

이제 보니 지훈 오빠 3학년 담임선생님 같았다. 진학 상담을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어떻게 일 년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랑 국어는 매번 백 점이에요. 이런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어찌면 이 두 과목은 항상 백 점 맞는지 저도 꽤 놀랐습니다.”

지훈 오빠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갔다.

“이제 일 년 남았지만, 지훈이 머리 정도면 암기 과목은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학년 때도 제가 수업시간에 들어갔을 때 유심히 보긴 했어요. 워낙 무기력해진 애라서요.”

“원래부터 우리 지훈이를 좀 알고 계셨나요?”

아빠 입에서 우리 지훈이라는 말이 좀 낯설었다.

“선생님들 대부분 지훈이를 알긴 알죠. 물론 나쁜 쪽으로라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때 퇴학 처분 취소될 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교권이 무너졌다는니 어쩌니 하면서요. 동문회장님도 좀 오해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긴 했죠.”

“동문회장님이 지훈이 보호자 역할 하셔서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 퇴학 결정 회의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과했고 상황 설명도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대부분 선생님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었고 모두 다 봤답니다. 그리고 신 선생을 말린 것도 저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훈이가 자기가 어떤 이유로 체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고 그 말이 신 선생을 매우 화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무차별로 때리다가 지훈 학생이 넘어졌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때리는데 지훈 학생이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으려다 작은 의자가 손에 잡힌 게 날아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모두 선생님에게 의자 집어 던진 놈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하겠어요.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 쳐도 절대 지훈 학생이 의자를 선생님께 집어 던진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옆질러진 물이고 결과만 보이는데....”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빠도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이 돼서야 아빠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넌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겨 내는 힘이 생겼어. 그래서 아빠도 너에게 조언을

듣고 싶구나. 우리가 지훈이를 만나는 건 어떨까?”

나는 한참이나 대답을 망설였다.

“아마도 지훈 오빠가 나를 좋아했다손 치더라도 나를 잊기 위해 몸부림쳤고 또 차차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굳이 지훈 오빠의 인생에 주연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것도 그냥 나의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도 차차 그 애를 잊고 있는 거니?”

“아니, 아빠 내가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

“글쎄다.”

“겨울 아침에 너무 춥고 졸린 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문 배달할 수 있는 힘이었어. 나 지훈 오빠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도 참는 거야. 이러다 진짜 지훈 오빠는 나를 잊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오빠는 내가 버텨낼 힘이었고 항상 고마운 사람, 그리고 미안한 사람으로 남을 거야. 사실 오빠랑 같이 검정고시 보려고 준비했었어. 하지만 오빠는 그 길을 선택했고 나도 내 길을 선택한 것뿐이야.”

“어쨌든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구나.”

“아빠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인 거 같아. 다행히 3학년 담임선생님은 좋은 분처럼 보여서 안심이야. 지훈 오빠는 꼭 일어설 거야.”

그렇다 사랑이란 믿어 주는 힘이다. 내가 지훈 오빠를 믿는 것. 그리고 아빠가 나를 믿어 준 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힘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했다. 한 번씩 숨어서 지훈 오빠를 지켜보는 일도 이젠 힘들어졌지만, 아빠와 나는 담임선생님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오빠를 지켜봤다. 전화 통화를 거듭할수록 아빠의 얼굴은 상기 되었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니까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성장한다면 내년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저도 서둘러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별말씀을요. 제가 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자기 혼자 저러고 있으니 저도 어안이 병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직접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스피커 폰으로 돌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보시며 연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화를 끊고 아빠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긴장을 푸셨다. 나는 가볍게 아빠 어깨를 매만지고는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첫눈을 기다릴 때 즈음 드디어 지훈 오빠의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꽤 괜찮은 과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마치 내가 합격 한 것 마냥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빠는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신 모양이었다.

“애가 왜 재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봤어요. 수학이 너무 아까워서요. 수학은 당연히 1년 안에 복구할 수 없는 거니까. 1년만 더 하면 충분히 탑클라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굳이 지훈이가 자기는 여기가 좋다는데 어쩍니까?”

아빠는 지훈 오빠의 대학 합격 소식의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앞서는 모양이었다.

“아마도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했지요. 재단 장학금도 있고.... 아무래도 지훈이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성적을 일 년 안에 이렇게 끌어 올린다는 것도 제 댄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다가도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듣다 보니 선생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린 데로 특별장학금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재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 돈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졸업식 때 뵙겠습니다. 우리 딸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내 눈을 찬찬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살짝 놀래고 상기 되었다.

스피커 폰을 끊고 아빠가 물었다.

“어떠냐....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꾸나. 난 조용히 뒤에서 보고만 올 거야. 아마 너도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그 정도라면 저도 아빠랑 같이 갈래요. 고마워요. 물어봐 주셔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 안은 설렘보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냐? 오늘은 좋은 일로 가는 거잖니.”

“좋아요. 당연히 지훈 오빠 졸업식인데 좋죠.”

“오늘 진짜 그냥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고만 올 거니?”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실 지훈 오빠가 내가 보고 싶었으면 진작에 연락할 방법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 없는 것 보면 저도 이제 지훈 오빠를 놔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요.”

“흠.... 그렇구나.... 너는 지훈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나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울컥해지더니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갑자기 주책스럽게 떨어져 버린 눈물이라 나는 급히 가방을 열어 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때 하필 핑크색 편지 봉투가 차 좌석 밑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다.

아빠가 내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급히 차를 갓길로 대셨다.

나는 급히 편지 봉투를 집어 들어 가방에 넣었다.

“오빠 이제 대학생 될 텐데.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래야죠. 지훈 오빠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버렸다.

아빠는 조용히 내 등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는 내 품에서 조용히 가방을 끌어내 그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를 장학증서가 담긴 봉투에 넣었다.

“아빠 하지 마요. 괜히 쓴 것 같아요. 오빠가 읽는다면 내가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다. 안 해보고 하는 후회는 있어도 해보고 하는 후회는 잘 없단다.”

우리 둘은 학교 강당 아주 뒤편 멀찌감치에서 강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러 식순들이 지나고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클라이막스 순간이 다가왔다.

“다음 상은 우리 학교 12 회 졸업생이시자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신 ○○상사 최○○ 님께서 장학금과 함께 수여하시는 특별상입니다. 오늘 공사가 다망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교장 선생님께서 대신 수여하시겠습니다. 3 학년 1 반 이지훈 앞으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지만 이내 나는 그 박수를 거두어야 했다. 강당은 웅성거림으로 술렁거렸다. 기계의 공명음이 울리듯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빠도 당혹스러우신 거 같았다.

영거주춤하다가 겨우 일어서는 지훈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상장을 대독하는 사이에도 강당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뒤돌아서 강당을 내려오는 지훈 오빠 얼굴은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앞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강당 밑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한쪽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몇몇

아이들이 그제야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손가락을 입에 끼고 휘파람을 불어 댔다. 오빠가 3년 동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쓰렸다.

답장은 일주일 뒤에도 그리고 한 달 뒤에도 오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딴생각하고 있을 때 아빠가 들어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이가 장학증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나는 다시 졸업식장에서의 그 불편한 공기가 느껴졌다.

“네 편지를 아마 발견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지훈 오빠가 편지를 읽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모르고요. 전달되지 않았다면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이유도 있는 거겠죠. 아빠 말씀처럼 해보고 하는 후회는 별로 없다고 저도 후회되는 거 없어요. 아빠도 후회하진 마세요. 우리 지훈 오빠의 선택을 바라보고 존중해야죠.”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어깨를 꼭 한번 쥐시더니 방을 나가셨다.

나도 조용히 지훈 오빠를 떠나 보내고 있었다.

난 어차피 공부에는 크게 재능이 없었다. 검정고시 합격의 기세를 몰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고만고만한 대학에 합격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뭔가 공허함이 몰려왔다.

여대에 입학했지만 방학기를 둥둥 떠다니듯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간 것만 같았다.

“아빠 저 휴학하고 어학연수 다녀올까 봐요.”

“응?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요즘엔 어학연수 많이들 가잖아요. 염치는 없지만, 아빠가 초기 비용 조금만 빌려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그래도 각종 아르바이트로

단련된 몸이잖아요. 거기 가서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영어도 얼른 늘 것 같아요.”

“비용 문제가 아니지 않은 건 너도 알지 않니?”

“아빠 아직도 저 붙잡고 싶으세요? 저 아빠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같이 붙어 있고 싶지 않다고요. 저 없는 동안 연애도 좀 하시고 가능하면 결혼도 좀 하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구요. 몇 년 지나면 할아버지 되실 텐데 누가 쳐다보거나 하겠어요. 괜히 저한테 기대 거시지 않는 게 좋을걸요?”

“허허허 이 녀석이 아빠 가슴에 비수를 꽂는구나. 그래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거라. 아빠가 길을 막으면 안 되지. 가거라. 꼭 가거라.”

나는 혼자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유학 준비가 바빴지만, 출국을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꼭 와보고 싶어서였다. 많이 변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흔적을 쫓아 걸어 다녀 보았다. 그리고 지훈 오빠의 학교도 찾아가 보았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훈 오빠로 보이는 사람이 보였다. 많이 변했다. 군대에서 복학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은 아직 검게 그을려 있는 듯했고 머릿도 그냥 대충 짧게 깎고 다니는 듯했다. 이제는 나보다는 확실히 조금이나마 커진 게 옛된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오히려 아저씨 쪽에 가까웠다. 후줄근한 차림새가 저렇게 해서 여자친구나 사귀는지 걱정이 되었다. 단과대 건물 앞에서 한참이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더니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아주 잠시였지만 오길 참 잘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뽕족뽕족해서 아프던 내 가슴이 세월이 가니 반질반질 닳아져 버린 것일까?

유학 생활은 절대 만만치 않았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유학원을 끼고 온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야만 했다. 게다가 이곳은 호주에서도 한국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애초에 내가 한국 친구들은 좀 멀리해야겠다는 의도였지만 힘은 두 배로 들었다. 영어 백 점 맞는 지훈 오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오랜만에 내 안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다.

“언니 언니 이 기사 봤어?”

같이 룸쉐어를 하는 동생이 나에게 신문을 들이대며 이야기를 했다.

“뭔데?”

“어떤 남자가 첫사랑 찾는다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

“뭐라구? 그게 무슨 소릴까?”

영자 신문이라 더듬더듬 읽어봤고 사진이라야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았다.

“여기 이름 언니 한국 이름 아니야?”

“응?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아침 뉴스에 살짝 나왔는데 어쩌면 저녁 뉴스에도 나올지 모르겠어. 조금 있다가 티브이 한번 같이 보자.”

뭔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뉴스는 한나절 만에 갑자기 큰 뉴스가 된 것 같았다.

저녁 뉴스 후반에 아나운서가 긴장을 푼 모습으로 약간의 농담을 곁들이며 뉴스를 소개했다.

“다음은 우리 방송국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불과 하루 사이에 엄청난 반응이 있었죠? 화면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화면은 리포터가 공원 호수 앞에서 뉴스를 전하는 장면이었다.

“시 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

“잠깐만요 잠시 끊고 갈게요. 저 뒤에 저 사람 뭐죠?”

한 청년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물로 침범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피켓 들고 또 난입하는 건가요? 젠장 어딜 가나 저런 관심 병자들이 끼어든다니까.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 저 사람 수영 못하나 봐요. 가라앉고 있잖아. 오 마이 갓.”

카메라 줌이 당겨지고 피켓을 든 손만 위태롭게 떠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피켓에는 또렷이 글씨가 보였다.

"Have you seen OOO!!"

화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 같았다.

"누구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제발 주여!!"

이제 피켓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

몇 사람이 물가로 접근해서 청년이 빠진 곳으로 구명튜브를 던졌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 보였다. 갑자기 수면에 파문이 일더니 수면으로 손이 뻗어 올라와 구명튜브를 잡았다. 그제야 몇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구명튜브를 끌고 물 밖으로 나왔다.

화면은 스튜디오로 전환되었다.

"단순히 카메라에 관심을 끌려 하는 사건이 아니란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연은 멀리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7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 청년은 그녀의 첫사랑을 찾아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곳 호주까지 여행을 왔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을 오가며 한인 단체나 유학생 단체를 수소문 하였지만 허사였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이 청년은 호수를 배회하다가 방송국 카메라가 세팅되는 것을 보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무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거 같은데요?"

"불과 하루 만에 뉴스가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아직 이 청년의 그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물에 익사할 뻔했는데 지금 청년의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이 청년은 바로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퇴원했고 지금은 지역 한인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빨리 그녀를 만나기를 응원하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언니 언니 이야기 맞지?"

나는 쉽사리 대답하기 힘들었다. 정신이 멍해지고 손가락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답장도 하지 않고 편지도 읽어 보지도 않던 사람이 인제 와서 이게 무슨 소동이란 말인가?

선뜻 대답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건지 말을 이어갔다.

“언니 괜찮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맞지? 남자들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7년 전 첫사랑은 무슨.... 언니 그냥 모른 척해. 어차피 퍼스하고 시드니는 너무 멀어서 누가 알아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았다. 지훈 오빠가 그렇게 오랜 세월 반응이 없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당혹감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애써 아무 일 없는 척 학교에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인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며칠이 지나 지나가는 가십거리였다는 듯 유학생 커뮤니티도 조용해졌다. 그리고 상대방 여성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다는 여론이 조용하게 일었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애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니?”

“뭐 물론 첫사랑 상대가 즉각 나타났다면 동화 속 엔딩으로 좋았겠지만, 현실은 아니잖아.”

“뉴스가 그렇게 퍼졌는데 나타나려 했다면 진짜 나타났겠지.”

“결국, 또라이가 자기 기분에 난리 친 거지 뭐. 그 여자만 숨어 지내게 생겼다니깐.”

“으....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정말.”

나는 밥손가락을 딱 하고 내려놓았다.

“야! 니네들 남의 일이라고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학생식당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바로 시드니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막상 시드니 공항에 내렸지만, 그 한인교회가 어딘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전화를 돌려보았다.

“아이고 그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희도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요. 이번엔 한국 방송국인가요?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그 학생 어디 있었는지 알지만 알려드리기도 힘들어요. 그 학생이 이제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대요.”

“제가 그 학생이 찾는 ...”

“네네 그러시겠쥬. 그 학생이 찾는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그 학생 이제 한국 갔으니까 한국 가서 연락하세요. 그 학생이 말하기를 그 여학생은 자기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자기는 만족한다고 괜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답니다.”

“저 정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속이고 인터뷰 따내려는 기자는 더 아니구요. 저 퍼스에서 방금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렸어요. 그 오빠 이름이 이지훈이고 OO도 사투리 쓰잖아요. OO 대학교 다니고 맞잖아요.”

“으응? 진짠가 보네. 지금 여기 없어요. 뉴스 못 봤어요? 귀국할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아가씨~"

"벌써 귀국해버린 건가요?"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지금 공항이라고 했지?"

"네 시드니 공항이에요."

"지금쯤 아직 이륙 안 했으려나. 시간이 딱 지금인 거 같은데...."

나는 전화통을 탁하고 끊어버리고 뛰기 시작했다.

공항의 전광판을 살살이 훑어봤다. 인천행 아시아나... Boarding gate 24

나는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할 리 만무했다. 바보 같았다. 나는 다시 공항지도 안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숨이 너무 가빠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This is the final boarding call for Asiana Airlines flight 798 to Incheon. All remaining passengers should proceed to gate 24 immediately."

똑똑하게 들리는 안내 방송이 내 귀에 꽂혔다. 지도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깊은 심호흡을 반복하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여기 구조가 어땠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나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진짜 죽기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Gate 24 에 도착했다. 하지만 커다란 통유리로 분리된 공간이고 내가 그곳에 진입할 방법은 없었다. 승객들이 한참 탑승권을 보여주며 타는 곳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살펴봐도 지훈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쳐 부른다고 한들 내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그리고 큰 통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썼다.

"Have you seen Ji-Hoon!!"

빨간색 립스틱은 이 한 줄을 쓰는데도 부족하게 질고 크게 썼다. 그리고 통창을 광광 두드렸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항 시큐리티까지 내 쪽으로 급히 달려왔다.

탑승 수속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통창에 매달려 계속 주먹으로 쿵쿵 두드렸다.

립스틱이 내 옷에 뭍겨져 지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통창에 붙어서 울음을 쏟기 시작했다. 보안요원이 달려와 나를 제지하고 끌어내려고 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통창에 매달렸다.

수속을 받던 승객 한 명이 지훈 지훈 지훈을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탑승구 앞에 모여 있는 사람 몇몇이 그 승객의 박자에 맞춰 지훈 지훈 지훈을 연호했다.

그때였다. 수속대 뒤쪽에서 지훈 오빠가 달려 나왔다. 수속대를 가뿐히 뛰어넘더니 나에게 뛰어 왔다.

우리는 통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눈물 젖은 뺨을 서로에게 가져다 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 그 속에 간간이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다.

“남자가 뛰어내리려면 저 정도 높이에선 뛰어내려야 품이 낫을텐데 말이지....”

하버 브리지가 바라다보이는 해안 산책로 난간에 기대어 내가 말했다.

“호수 바닥 깊지도 않았을 텐데 일부러 허우적거리는 연기한 거지? 내가 창피해서 연락 못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 그럼 다음엔 저 다리에서 뛰어 내릴 거니까 얼굴 팔리고 시집은 다 갔다고 생각해”

“치, 그럼 내가 도망가지 찾아오겠어?”

“도망가도 내가 네 결혼식장까지 쫓아가서 갓난애 둘러업고 사연 있는 남자처럼 입구에서 울고 있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언제는 꺼지라면서 비 억수로 내리는데 검정고시 안내서 걸어 차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야 나타나서 생색은 생색이야? 내가 뭐 이러면 오빠 만나주기로 한

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데 왜 아까 공항에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였니?”

“나만 쪽팔릴 순 없으니까 오빠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지. 미친 애가 공항에서 첫사랑 남자친구 찾는다고 난동부리다.... 라고 신문에 나면 좋잖아. 미친 남자가 첫사랑 찾는다고 호숫물에 빠져 죽다.... 뭐 쌤쌤이네.”

“그리고 이왕 카메라 찍힐 거면 좀 멋있게 헤엄쳐서 나오든지 허우적거리다가 맥주병처럼 가라앉을 게 뭐람. 그리고 그래도 해외여행인데 이 복장 상태가 뭐야? 내가 진작 오빠 학교.... 흠.... 아냐.... 이래가지고 여자친구도 아직 사귀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나마 오빠 좋아해 줬던 사람 지금이라도 어찌 안되나 하고 찾아온 거 내가 다 알아.”

“그래.... 정확하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구제해주지 않겠니?”

“버스는 떠났고 오빠도 이제 좀 꾸미고 자력갱생해. 나 남자친구 생겼어.”

나는 오빠의 표정을 살짝 곁눈질로 살폈다.

“ㅎㅎㅎ 당연하지. 네가 남자친구 없다면 말이 되겠니.”

너무 편안한 말투에 짐짓 화가 났다.

“우리 깊은 사이야. 오빠 들어올 자리 없을 텐데.”

“그래 어떤 남잔데?”

“꼭 듣고 싶어? 질투하려고? 흠.... 그 오빠는 엉뚱하지만 순수하고 항상 내가 모르는 걸 잘 설명해줘. 한 시간 바라보면 한 시간 웃고 있고 두 시간 바라봐도 두 시간 내내 웃어. 그리고 우유 냄새가 나.”

대답하고 나니 무의식적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해 버린 느낌이 났다.
상상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좋은 남자네. 그럼 나 같은 남자는 어때?”

“오빠 같은 남자가 뭔데?”

“포기 따위는 모르는 남자.”

키 좀 커졌다고 으스대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어쨌든 오빠 너무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사실 좀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생길 문제가 또 있어?”

“응. 이건 대개 심각한 문제야.”

“뭔데?”

“오늘 너땀에 비행기 놓쳐서 비행기 티켓 다시 예약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이가 없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긴 했다.

“내가 나중에 너 데리고 살게 되면 값을 테니까 돈 좀 꺾줘.”

“무슨 말이 그래? 여기까지 오면서 그 정도 여윌돈도 안 가지고 왔어? 아니 그리고 사람이 어찌다가 이렇게 뻔뻔해졌어? 지훈 오빠 맞아?”

“그러길래 니가 좀 빨리 나타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아이구 참나 호주가 시드니하고 멜버른밖에 없다고 생각한 오빠가 문제지. 나도 가난한 유학생 처지에 오빠 본다고 퍼스에서 여기까지 티켓 끊어서 온다고 지금 빈털터리야.”

빈말이 아녘다. 나도 수중에 돈이 없었다.

“그래 뭐 까짓거 비자 만료가 널 모랜데 여기서 불법체류자로 그냥 눌러앉아야겠다. 돌아다녀 보니까 뭐 살만한 것 같아. 오히려 잘됐네.”

“오빠 행색이 이미 불법체류 노숙자야. 이런 배낭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월남전에서 쓰던 거 가져온 거야?”

“빙고! 나 돈 떨어져서 한 달째 노숙한 거 교회에서 말해주데?”

난 잠깐 말문이 막혔다. 물끄러미 남루한 배낭을 쳐다보다가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다.

“돈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귀국이나 하지 뭐 한다고 나라 망신시키게 지금까지 버틴 거야. 이 바보야.”

“왜냐구? 말 했잖아.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고.”

“아.... 머리 아퍼.... 진짜 오빠 지훈 오빠 맞아? 누가 오빠 이렇게 만들어 놓거야?”

“그러는 너도 한참은 변한 거 같은데 내 말이라면 뭐든지 깔깔거리던 소녀는 다 어디 간 거야?”

“신문 배달하다 보니 성격이 바뀌었나 보지. 신문 안 본다고 난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오빠는 멈칫하면서 나를 뚫하니 쳐다보았다.

“아 모르겠고 일단 배고파 밥 먹고 생각하자.”

“내가 오빠 밥 사준데?”

“비행기 푯값은 없어도 니 밥 사줄 돈은 있다. 얼른 가자.”

오빠는 나를 식당에 앉혀 놓고 한참을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질 무렵 식당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호주 총리한테 돈이라도 빌리러 간 거야?”

“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딱딱 맞추니?”

“뭔 소린데?”

“응. 다 해결 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밥 먹자. 내가 너한테 괜한 말 해서 부담스러웠지 미안해.”

“뭐가 해결돼? 진짜 호주 총리가 비자라도 연장해준데?”

“그건 아니고 승재가 돈 빌려주기로 했어. 대신 니 호주 계좌번호 있지? 그것 좀 불러줘야겠다.”

“승재 오빠랑 만나? 민지가 오빠랑 승재 오빠 완전 틀어져서 안 만난다던데. 승재 오빠 손가락까지 부러뜨렸다며?”

“응.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지. 나도 개한테 많이 맞아서 썸썸이야. 게다가 승재하고 쌈박질했다고 그다음 날 담임한테 또 맞았으니까 아주 따분로 맞은 샘이지.”

“승재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승재 오빠한테 빌려? 관둬. 나도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빠한테 부쳐 달라고 할 거면 애시당초 말어.”

난 잠깐 오빠를 뵈히 쳐다보았다. 오빠 표정이 약간 굳는 것 같았다.

“알았어. 할머니한테 부쳐 달랄 테니까 승재 오빠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

“이미 말해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우리 둘 사이엔 갑자기 긴 침묵이 흘렀다.

“나도 승재 오빠 별로야. 오빠만 우리 아빠 별론 거 아니야. 승재 오빠 돈 받기 싫어.”

“네가 승재 돈 받는 거니? 승재는 나한테 돈 부치는 거야. 뭐 그렇다면 니 통장 이용 수수료도 같이 부치라고 할게. 그리고 승재 손가락 왜 부러졌는지 아니?”

“내가 알게 뭐야? 민지가 그러는데 내 이야기만 나오면 승재 오빠가 펄쩍펄쩍 뛴다던데.”

“니 편지 나한테 전해주다가 손가락 부러진 거야.”

“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오빠가 부러뜨린 거지. 내 편지가 그렇게 싫었어? 편지 전해주는 사람 손가락 부러뜨리게? 그리고 우리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획 돌아서 앉았고 또다시 갑작스러운 침묵이 우리를 덮쳤다.

“우리 이러다 진짜 싸우겠다. 그만하자.”

우린 너무 오랜 시간의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거리를 걸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할 말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시간의 계곡을 어떻게 건널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죽이 잘 맞았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 시간의 강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지훈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디 적당한 유스호스텔이나 가야지 뭐.”

“우리 그러지 말고 텐트 치고 공원에서 잘래? 내가 여기 있으면서 봐둔 곳이 있어서 그래.”

“오빠 왜 이렇게 안 본 사이에 징그러워졌어? 나 남자친구 있다구.”

“무슨 상상을 하는지 니가 더 징그러운데?”

“아니 남자랑 여자랑 한 텐트에서 잔다는데 그게 안 징그러워?”

지훈 오빠는 진정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게 그런 건가?”

오빠는 머리를 긁적였다.

“개념 좀 챙겨 오빠. 내가 뭐 오빠 군대 전우야?”

“미. 미안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그럼 넌 유스호스텔에 들어가 난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있으니까”

“유스호스텔 둘이 해봤자 얼마 안 해. 그냥 유난 떨지 말고 같이 가.”

“아니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뭐 호주 총리랑 캠핑장에서 텐트 치고 비비큐 파티라도 하기로 했어?”

“알았어. 내가 금방 할 일 끝내고 유스호스텔로 갈게. 걱정 마.”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나는 유스호스텔에 들어오자마자 잠에
푹아떨어졌다. 이른 잠에 깨어난 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홉 시가 좀 덜된
시간이었다. 지훈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호스텔 공용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훈 오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잤어.”

“그래 잘했어. 우리 잠시 어디 좀 가자.”

“아홉 시야 어디를 가. 호주는 한국하고는 달라.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돼?”

“어딜 가는지 말을 하라구. 오빠 예측 불허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구.”

지훈 오빠는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살짝 웃어 보였다.

“그래 가자 가. 오빠가 납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지훈 오빠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참을 어디론가 향했다.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이었다. 가로등 불빛 몇 개 이외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고요하고 어두웠다.

“이 밤에 여길 오면 어떻게 해. 여기 나쁜 애들도 나온다구.”

“걱정 마. 내가 거의 한 달 동안 여기서 야영해서 여기 사정은 내가 아주 잘 알아.”

지훈 오빠는 나를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오빠 무서워 너무 캄캄하잖아. 이런 데서 텐트 치고 한 달이나 살았다고?”

오빠는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너 기억 안 나? 나 상처 소독해준 날.... 나 그때 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막무가내에다가 넌 그때 나보다 키도 훨씬 컸잖아. 남자애 바지나 벗기고 말이야. 정말 넌 무서운 여자애였어.”

말문이 막히면서도 웃음이 피식하고 나왔다. 오빠의 말 때문이었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약간 가실 즈음....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다.

줄줄 흐르는 아주 좁은 개울이 나왔다. 양쪽은 푸른 잔디가 어둠 속에서도 약한 빛을 받아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었다. 더 걸어서 들어가 보니 그 개울이 조명에 비춰 반짝이고 있었다. 어찌 된 일인지 어디서 그 빛이 오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울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빛을 받아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투명한 컵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촛불을 하나씩 커 놓은 것이었다. 개울 위쪽까지 하나하나 그 불빛이 물빛과 함께 어둠 속에 일렁이고 있었다.

“이거 오빠가 다 만든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좁은 개울의 불빛을 거슬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관목이 우거진 곳을 돌아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우리 집 앞에 지훈 오빠가 눈으로 만들어 주고 간 것과 거의 똑같은 나무 조각이
서 있었다. 긴 머리가 허리까지 흐르고 있었고 불은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다.
풀밭에는 작은 랜턴이 사방에 꽃혀 조각상을 빛내고 있었다.

“오빠 차라리 미대를 가지 그랬어?”

“하하하 뭔가 감정이 안 올라오니? 난 니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깎아서 만든
건데.... 이러기야. 너 정말 이러기야 사람 부끄럽게?”

나는 지훈 오빠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훈 오빠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갰다.
오늘 온종일 참았던 키스였다.

오빠는 나를 살짝 밀어내며 뺨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내 손을 이끌고 조각상
뒤편으로 갔다. 오빠는 아직 개념이 없는 게 확실했다.

“나 아직 너한테 보여줄게. 아직 남았어.”

이 분위기를 깨는 천둥벌거숭이는 도대체 변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키스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기대에 찬 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아 또 뭔데? 어디가 크라이맥스인지 미리 이야기해줘. 맥락 깨지니까.”

“자 이거 받아.”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물체가 내 손에 들려졌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쇧덩어리야 돌덩어리야. 왜 이리 무거워.”

손으로 들고 있기 버거워서 바닥에 내려놨다.

“한 번 열어봐.”

묵직한 뚜껑을 열어보았다. 지훈 오빠가 조명을 비추어 주었다.

사탕이었다. 사탕이 가득했다.

“무슨 사탕을 이런 금고 같은데 넣어서 주는 사람이 어딴어?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닌 거야? 이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한 거야?”

“나 이제 절대 사탕 밟히는 일 없게 할 거야.”

나는 울컥해졌다.

“오빠 말해 달랬잖아. 어디가 크라이막스인지....”

오빠는 다시 내 손을 잡고 언덕배기로 안내했다. 은하수가 쏟아지고 있었다. 호주 와서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맑게 흐르고 있었다.

“나 매일 이거 보면서 너 생각했어. 꼭 같이 보리라고....”

나는 오빠를 살짝 안아줬다. 개념 없는 오빠에겐 아직 이게 더 어울렸다.

“이거 못하고 귀국할까 봐 얼마나 실망했었는데 고마워 나타나 줘서.”

“오빠 고마워....”

우리는 한참이나 은하수를 쳐다보다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다. 오빠는 여전히 개념이 없었다.

티켓 부스에서 오빠가 인천행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갑자기 나는 오빠의 팔을 잡아당겨 대기석 쪽으로 끌고 갔다.

“아 왜 그래? 또 뭔데?”

“그래, 또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끝인 거야?”

“가버리다니 우리 또 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연락처도 이제 다 있고.”

“한국에 꿀단지라도 숨겨 났어?”

오빠는 내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도 알어. 나도 너랑 더 있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나 내일이면 비자 만료돼서 진짜 불법체류자 된다구....”

“그래?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나는 다시 티켓부스로 지훈 오빠를 데리고 갔다.

“”Do you have the fastest flight to Christchurch?”

오빠가 깜짝 놀랐다. 이번엔 오빠가 나를 끌고 대기석 쪽으로 데려갔다.

“무슨 소리야? 크라이스트 처치라니?”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오면 다시 비자 3개월 연장이야. 인천가는 표보다 훨씬

쌀 테니까 나머지로 숙소 비용하고 있다가 계획 정리되면 다시 호주로 와.”

“나 이제 복학했고 여기서 3개월 보내느라 학기 등록도 친구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놓은 거야. 나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나더러 한국 가라고? 나도 어차피 어학연수 온 거라서 이거 끝나면 복학해야 해. 복학하면 나는 서울 오빠는 지방인데 또 일주일에 한 번 꼴랑 보는 거 오빠가 매주 올라올 거야?”

“그럼 나더러 또 휴학하라고?”

“나 오빠 때문에 대학 입학 1년 미뤄진 거 알지? 오빠 편모슬하에 독자라고 남들 26개월 군대 다녀올 때 오빠 18개월 방위로 끝낸 거 다 알아. 1년 더 쉬고 입학 동기 예비역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 딱 맞겠네.”

오빠는 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 뭐 그동안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뒷조사는 무슨 그냥 딱 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지. 1년 쉬기 그러면 한 학기만 쉬어. 영어 하나도 못 하는 나도 여기서 아르바이트 뛰면서 사는데 오빠는 나보다 더 쉬울 거 아니야. 워킹홀리데이 신청해서 딸기밭에라도 나가던지.”

오빠가 타이르듯이 말했다.

“우리 당장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당장 헤어지기 싫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너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나도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우리 연락도 자주 하고 천천히 또 만날 수 있어. 애처럼 막무가내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애? 막무가내? 오빠야말로 여기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온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보고 끝. 이게 계획이었어? 그 뒤가 그냥 또 기다려라가 계획인 거야? 나 지금 7년 기다렸어. 오빠랑 나랑 정확히 얼마나 사귀 지 알아? 한 달 반이야 한 달 반.”

오빠는 말이 없었다.

“맨날 기다리고 버티고 그렇게 미련하니 쓸데없이 2년 동안이나 학교에서 안 해도 될 고생 했지. 어차피 내가 2년 안에 대학 갈 수 있다고 할 때는 걷어차더니 결국 1년 공부해서 대학 온 거 아니야? 난 검정고시 학원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오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다 걷어차고 고작 한다는 것이

고집스럽게 교실에서 앉아서 버틴 거야? 나도 또 그렇게 버티라고 하는 거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좋아하시네.”

오빠는 얼굴이 빨개졌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아차 싶었다.

인생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조심해야 하고 삼켜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나는 잘 몰랐다.

“그 미련하고 헛된 2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쉽사리 그 뜻이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네가 그냥 아빠 보호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었으면 신문 배달 안 했으면 불판 닦다가 손가락 짓무르지 않았으면 지금 니가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매일 웃고 즐기고 좋기만 했으면 7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고 1 남자애하고 중 3 여자애가 7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눈물 흘리면서 죽도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오빠.....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야. 나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미련하고 헛된 시간 내가 네 옆에 있어 주지 못했던 게 후회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그리고 네 말이 맞아.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있자. 각자 견뎌 냈다면 이제 우리 둘이 견뎌내자. 네 말이 맞았어.”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요새 전화가 뜸해서 내가 한번 해봤다.”

“네 아빠도 별일 없죠?”

“응 그렇지 뭐.”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몸도 불편하신데 좀 쉬라고 말씀드려도 도통 말씀을 안 들으려 하시는구나."

"며칠 어디 갔다 온 모양이던데....."

"....."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아빠 지훈 오빠가 왔었어요."

"지훈이가? 정말이냐? 너 만나러 온 거 드냐? 지금 같이 있는 거냐?"

아빠가 너무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 내셨다.

"아니예요. 딱 하루 보고 지훈 오빠는 갔어요."

"아니 왜?"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말 좀 해라. 지훈이가 뭐라더냐?"

나는 한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래요."

"뭐?"

"포기 따위는 모르는 남자래요. 자기가"

"엉? 허! 허헛!! 그놈 물건이구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공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물론 공항에선 내가 난리 친 거지만."

"신문 스크랩한 거 하고 뉴스 녹화본 테이프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구나."

"그렇게 좋아하실 건 없어요. 지훈 오빠 아직도 아빠 좀 싫은 기색이던데...."

"암.... 암만 그러겠지. 내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지훈 오빠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불가능했다.
대신 3개월 비자 연장은 가능해졌다.

우리는 한인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교포분이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지훈 오빠는 그곳 프런트 관리와 시설 청소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둘의 거처를 마련했다. 원래는 이것도 불법이긴 했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다. 방값이 굳자 나머지는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식대와 용돈을 충당했다.

“넌 어학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뛰고 바쁜데 난 그냥 얹혀사는 기분이네?”

지훈 오빠가 내 종아리를 풀어주며 말했다.

“응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조 훈련 지금부터 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오빠도 유스호스텔 잡일로 가만히 앉아 있을 틈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오빠 내가 그때 공원에서 오빠 허벅지 소독해줬을 때 말이지...”

“으응.... 그때.... 뭐 왜”

“내가 말이지 중 3 밖에 안 됐는데 어쩔 남자애 바지를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다 했을까 몰라? 그때가 우리 첫 번째 키스란 말이지....”

“아주 애가 발랑 까져가지고 그런 거겠지. 나 같은 순진한 애를 꼬셔다가.... 그래서 승재가 노발대발한 거 아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키스한 지 알아?”

오빠는 갑자기 눈을 위로 치켜뜨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두 번이지 아마? 볼 뽀뽀 포함하면 세 번인가?”

“달랑 두 번을 그렇게 곰곰이 생각할 문제야? 그 두 번도 다 내가 한 거 알아 몰라?”

오빠가 배시시 하고 웃었다.

“한 달 반 만난 사이에 두 번 키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오빠 지금 내 종아리 마사지하면서도 뭐 좀 그 뭔가 끓어 오르는 거 없어?”

“뭐가?”

“말을 말자.”

나는 문을 콧 닫고 나와버렸다.

이 유스텔에 같이 산지 한 달이나 되었지만, 지훈 오빠는 4 인실 남자 방에서 생활하고 나도 4 인실 여자방에서 생활했다. 물론 우리가 같은 방을 쓸 수는 없는 처지였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는 지훈 오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래서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안다는 것일까?

“어 아빠.... 잘 지내지? 좀 바빠서 전화 못 했어.”

“응 비디오 테이프 받아 보고 전화한 거다. 대단하더구나.”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해. 여기선 다들 정신병자 스토키로 소문이 났어.”

“네가 나타났는데 무슨 스토키야?”

“공항에서 도망쳐 나온 건 다행히 안 찍혀서 그 뉴스는 별로 안 뒀거든.”

“지훈이 처지가 말이 아니겠구나. 네가 변호를 좀 하지 그랬니?”

“아빠 내가 미쳤어?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서 내가 그 처자요~ 하고 광고하라고? 그럼 난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지훈이는 한국으로 갔니?”

나는 멈칫했다. 그동안 정신이 너무 없었다.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훈이 오빠가 와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할지 막상 말문이 막혔다.

“같이 있구나?”

“으응.... 근데 따로 있어.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허허.”

“아이 자꾸 놀리지 마.... 저 녀석 고자야.”

“뭐? 뭐라고?”

“아유 몰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론 걱정 붙들어 매셔. 또 전화할게. 끊어”

“아니 무슨 말이 그러니?”

“담에 통화해 나 지금 나가야 해.”

토요일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별을 찍고 있었다.

“난 호주 와서 느낀 건데 참, 사람들이 애정표현도 그렇고 뭔가 자유스러워 보여.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맘에 들고. 사이드미러도 없고 문짝도 너털너털해도 지붕에는 서핑보드 있는 것도 좋고. 오빠는 뭐가 좋은 거 같아?”

“응 여기 퍼스는 확실히 시드니 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 난 잔디, 별 그리고 모래 이 세 가지가 좋아. 뭔가 모노토너스한 분위기가 젤 맘에 들어.”

“그래 모노토너스한 사람이랑 참 잘 어울리는 도시네.”

저만치 맞은편 벤치에서 동성 커플이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 좋은데 저런 건 좀 적응이 안 되긴 해.”

“남자끼리도 하는데 이팔청춘 남녀가 참.... 뭐라고나 할까? 좀 그치?”

지훈 오빠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 자꾸 그런 나쁜 생각 하면 혼난다.”

“나쁜 생각? 내가 말을 말자 말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삼세번이라 했던가 나는 드디어 세 번째는 참지 못했다.

호스텔 사장님 식구들과 오랜만에 식사자리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사장님 내외와 딸 둘 그리고 지훈 오빠 그리고 나는 근처 시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훈이가 와서 호스텔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맙구나. 뭐 불편한 건 없니?”

“아뇨. 일도 별로 많지 않은데요. 뭐.”

사모님이 말을 덧붙였다.

“지훈 학생 저번에도 이야기 했잖아. 4 인실에서 생활하지 말고 2 인실 남는 거에서 그냥 생활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옆에 시끄러우면 잠도 잘 안 올 텐데....”

지훈 오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염치없지만 저는 됐구요. 애가 거기서 생활해도 될까요?”

“어차피 침대 양쪽에 따로따로 있는데 둘이 같이 생활해도 될 거 같은데요?”

사장님 딸이 거들었다.

“혼자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커플 아녘어요? 뭐 아니더라도 꼭 두 사람이 다른 방 써야 할 필요 있나요? 여기서 그런 거 잘 안 따지는데.”

내가 불쑥 끼어들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러럼. 내가 항상 신경 쓰였어. 그리고 중간에 커튼으로 분리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불편하면 나눠서 써도 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2 인실 필요한 여자 손님 있으면 그 방으로 배정하고 저는 4 인실에 잘게요.”

또 굳이 그걸 지훈 오빠는 끝까지 4 인실에서 자겠다고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턱에 힘을 꽉 주었다. 지훈 오빠도 잠귀가 밝아서 거의 매일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걸 잘 아는 나였다. 피곤한 배낭 여행객들이야 푹아떨어져서 잘 자겠지만 여기서 일상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자자 우리 음식도 나왔는데 사진 한판 찍고 먹을까?”

사장님이 우리를 한쪽으로 부르며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내 기분을 내보이는 것은 매우 큰 실례였다. 나는 괜히 밝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자 스마일...! 그리고 볼에 뽀뽀하기!! 엄마 아빠도 어서요~ 언니 오빠도 볼 뽀뽀~~”

나도 지훈 오빠 볼에 살짝 뽀뽀를 하였다.

“좋아 좋아요.... 하나둘 셋!~ ”

우리는 정지 동작에서 풀려나 가볍게 웃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터졌다.

지훈 오빠가 순진한 웃음을 웃으며 어깨를 으쓱 들어서 볼을 닦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사장님 딸의 표정이 말을 대신해줬다. 눈썹을 잔뜩 치켜 올려 뜨고 뭔가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나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와!, 이런 한국 음식 몇 달 만에 처음인 거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달아오른 내 얼굴을 눈치 못 챈 사람은 오직 지훈 오빠 뿐이었다. 지훈 오빠의 시선은 오직 삼겹살과 불고기에만 꽂혀 있었다. 그리고 잔뜩 흥분하여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인데? 뭐 내가 사장님 앞에서 실수 한 거 있어? 아니면 방문제 때문에 그래?”

나는 화도 내기 싫었다.

그리고 다시 방에서 나와 공중전화로 가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언니 웬일로 전화를 다 주고? 지훈 오빠랑 거기서 개가 쏘아지고 있는 거야?”

“너.... 지훈 오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훈 오빠가 난데없이 호주까지

찾아온 거야?"

"무슨 얘기를 하긴....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 아니고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뭐 잘못된 거야?"

"미안 내가 네 탓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뭘 일 있었는지만 알려줘."

"음.... 언니 검정고시 본 이야기하고 언니 식당에 아르바이트했을 때 나 만난 이야기 그리고 호주로 유학 간 이야기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지훈 오빠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뭐라고 하긴....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승재 오빠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갔는데 마시지도 못하는 술 진탕 마셨는지 승재 오빠가 업고 집에 눕혀놨다 그러던데?"

"알았어. 고마워.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아 언니 무슨 일인데? 뭐 가지고 싸웠는데 그래?"

"나중에 꼭 말해줄게. 오늘은 미안해. 끊어. 동전이 다 떨어졌어."

지훈 오빠가 따라 나와 있었다.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뭇 때문에 화났는지?"

"오빠 내가 더러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 오빠 분명 무슨 병 있지? 아니면 다른 쪽 취향이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알았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까....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여자 자존심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다니 절망스러웠다.

"아까 사진 찍을 때 왜 볼 닦았어?"

"볼을 닦아? 내가?"

“그래 내가 뽀뽀한 게 더러웠어?”

“에이 설마 그랬겠어. 별 의미 없는 거였겠지.”

“별 의미가 없다고. 근데 오빠만 빼놓고 다들 의미 있게 쳐다봐서 나만 아주 우스운 애가 됐잖아.”

“아니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랬겠지.”

“이제 실토를 하네. 무의식.... 의식보다 더 솔직한 게 무의식이라는 거 알아? 내가 오빠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에 담아 뒀다고 민지가 그러니까 솔깃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래서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라더니.... 언제까지나 귀엽다 귀엽다 해줄지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오빠 행색에 그 얼굴이면 누가 좋다고 해주겠어? 오죽하면 복학할 때까지 연애 한 번 못 했을까? 아니면 내가 고생한 거 미안하니까 나는 그런 거 외면 못 하는 사람입네.... 라고 무슨 도덕적 허영심이라도 있는 거야?”

“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말해.”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오빠 말이 맞았다. 이렇게 지르는 소리를 해봤자 좋을 게 없다.

“알았어. 흥분하지 않고 말할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빠 안 변한 거 같아. 나만 오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오빠 따라만 왔잖아. 그러다가 오빠가 손해 보고 힘드니까 나한테서 숨은 거고. 초콜릿 주니까 캔디 준거고 그러다 잘못되니까 다 나 때문이니까 나 쳐내고 숨은 거잖아. 그러다가 괜히 울컥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내가 억지로 눌러 앉히니까 그냥 또 따라서 오기만 하는 거잖아. 오빠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오빠 탓하는 거 아니야. 몸은 거짓말 못하는 거야.... 오빠가 말했잖아. 무의식이라고.... 그게 진짜야.... 오빠도 이제 너무 애쓰지 마.”

“미안해. 난 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

“아니야 오빠 미안해할 것도 없어. 우리 그래도 예전 오해도 풀었고 또다시 만나서 좋았어. 우리 그냥 예쁜 기억으로 보관해두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힘들었더라도 꼭 우리 둘이 그 힘든 시간을 서로에게 보상받을 필요는 없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데로 이고.... 오빠도 새로운 꿈을 꾼도 돼.... 괜히 나한테 미안해할 건 없어. 미안하다면 내가 오빠한테 더 미안한 거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를 가둬 두어선 안 돼.”

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었다. 이미 열어버린 이상 돌아갈 길은 없어 보였다. 나는 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오빠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더 아팠다.

나는 다음 날 짐을 싸서 전에 같이 지냈던 룸메이트 숙소로 다시 돌아왔다. 지훈 오빠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론 내가 짐을 싸서 나간다는 것을 알아채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간밤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의사 전달은 충분해 보였다. 나는 미움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지훈 오빠의 인생은 득이 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나를 대가는 치렀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오빠에게서 더 멀리 달아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옮겼다. 집에 걸어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속사정도 몰라주게 날씨는 여유롭게 따스했다. 느릅나무 잎사귀 사이로 쏟아져 오는 햇살이 볼을 간지럽혔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사랑스러운 풍경이 야속해 보였다. 그런 내 시야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귀엽게 생긴 사내아이 하나가 누나들로 보이는 여자애 사이에 둘러싸여 뽀뽀 세례를 받고 있었다. 꼬마애는 연신 손으로 볼을 닦아냈다. 그러다가 어깨를 으쓱하고 들어 올려 볼을 닦았다.

그런들 저런들 언제 와서 무슨 의미인가.....

호주 전역을 흔들어 놓으면서까지 나를 찾았던 지훈 오빠가 이런 콧구멍만 한 소도시에서 나를 못 찾고 있을 리는 만무했다.

“언니, 지훈 오빠 한국으로 귀국했대.”

“그래 그랬겠지. 잘된 일이야.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 온 거야.”

“언니 괜찮겠어?”

나는 아무런 말 없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고 깨고 싶지 않은 잠을 청했다.

“당장 귀국하거라.”

난데없는 아빠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일인데? 할머니 어디 아프셔?”

“할머니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아빠 무슨 일인지 설명해야지 가던지 말든지 하죠. 나 지금 진짜 힘들어요. 아빠까지 이러면 난 어찌라고 그래?”

“지훈이 때문이냐?”

“아. 제발 말도 꺼내지 마. 지훈 오빠 귀국한 지 한참이야. 여기 없어.”

“지훈이 지금 내 옆에 있다.”

아빠가 오빠를 찾아낸 것인지 지훈이가 아빠를 찾아낸 건지 순간 헷갈렸다.

“지훈 오빠가 무슨 잘못 했다고 또 찾아가서 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의심할 만도 한 게 아빠는 무척 화나고 단호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아끼는 딸을 두 번이나 상처받게 한 녀석을 아버지가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그렇다고 나까지 귀국하라는 이유는 뭔지....

“어쨌든 당장 귀국하거라. 귀국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단호한 아빠의 명령이라니....

나는 아빠의 말대로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바로 귀국행 티켓을 끊었다. 다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어봤자 소용은 없을 듯했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아버지는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도착했다고 전화하자 집으로 들어오라는 명령만 들어야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거실엔 할머니 아빠 그리고 지훈 오빠가 앉아 있었다. 인사를 건네기도 어색하게 세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는 듯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손녀가 반갑지도 않으신지 결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곤 짐짓 딴청으로 외면하셨다.

지훈 오빠는 한쪽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구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캐리어를 어디다 놓을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너 여기 좀 앉거라.”

나는 지훈 오빠의 맞은편으로 앉았다.

“지훈이 너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해 보아라.”

“제가 따님과 정식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청년 우리 애는 아직 어리다우....”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렇게 사귀고 싶었으면 진작에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제 와서 떠난 버스에 손 흔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따님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피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 했으면 되돌릴 순 없는 거지.” 할머니가 또 거들었다.

“이제 와서 내 딸이 너를 다시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의 오만 아니냐?”

“그럼 그럼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고 그건 아니지.” 할머니가 또 또 거들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하는 후회는 있어도 해보고 하는 후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님 이외에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응 아주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나오셨다. 이거지.” 또 할머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귀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함께 헤쳐 나가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손도 잡고 입술도 맞추고 만지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주 불량하구나. 그런 말을 하다니.”

“망측하구나.... 우리 손녀가 얼마나 순진한 앤데.”

“제가 불량했다면 호주에서 다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면 사랑은 서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가벼운 유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대 남자로 아버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만 좀 해. 짜고 하는 거 너무 티 나잖아!!”

“오빠 이리 나와.”

“방금 온 애가 또 어디 가려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아빠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빨랑 나오라고 좀.”

내 말에 지훈 오빠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엉거주춤 일어났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살살해 살살.... 뭘 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살살해라.”

할머니 말씀에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집 앞 공원으로 앞장섰다.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뭐라고 할지 막상 생각이 나진 않았다. 이건 좋지 않은 징조다.... 이러면 그냥 막 쏟아낼 테니까.

팔짱을 낀 채로 돌아섰다.

“사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 퍼스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인지 알아? 내

아르바이트는 어학원은 신경도 안 쓰지? 퍼스에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끝난 것처럼 하더니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이래? 아빠가 받아주니까 스스로 대견해 보여?"

"나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내가 퍼스 다시 가려고 했어. 내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너 불러들인 거고."

"내가 싫다는데 아빠 허락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어디서 아빠 핑계야? 아버지 허락? 무슨 허락? 뭐 여기 이슬람이야 조선 시대야?"

"그래도 해외에서 한방 쓸 수도 있게 됐는데 부모님 허락은 말아야지."

"미쳤어? 내가 언제 오빠랑 한 방 쓴데? 그리고 요즘 누가 키스하는데 허락 말니? 아직도 애네 애야. 너 마마보이 맞지?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방금 네가 키스하는데 허락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한 거 맞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훈 오빠가 나를 꼭 안더니 입술을 포갰다.

"웁!!"

뭔가 미끄덩한 것이 내 입술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것을 이빨로 짹 물어버렸다.

"악!"

오빠가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고 나는 그와 동시에 오빠의 뺨을 후려갈겼다.

"어디서 헛바닥을 들이밀고 지랄이야!! 튼튼!!"

이런 건 나도 생전에 처음이었다. 남자의 혀가 입술 사이를 파고들다니....

오빠는 허리를 숙이고 입을 감쌌다. 오빠의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다.

"뭐.... 뭐야? 피.... 아빠!!! 아빠!! 할머니!!! 빨리 응급차!!!"

응급 수술이 끝나고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나는 지훈 오빠 병실에서 오빠가 깨기를 기다렸다.

“아이고.... 이 정도니 망정이지. 애 하나 잡을 뻔했다. 그래 내가 살살하라 했잖니. 쫓쫓.”

할머니는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에구머니나.. 너 찬물로 세수라도 한번 하고 와라. 눈이 꼬막이 됐어 꼬막이. 지훈이 깨면 놀랄라.”

응급차를 타고 오면서 피를 한 대뺑 흘리는 것을 본 나 역시 실신 직전이었다.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본 뒤 눈을 쓱쓱 비볐다.

“지훈아 정신이 드니?”

아빠가 지훈 오빠를 불렀다.

“아 으... 어....”

“응 알았다.... 말하지 말라. 당분간 말 하지 마.”

나는 얼른 오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

오빠가 자기 입술에 손을 대 두 번 터치하더니 내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나서는 엄지 손가락을 척하며 들어 올렸다.

“미친 거야? 농담이 나와 지금?”

내 말에 아빠가 웃음을 참느라 급히 고개를 돌리셨다.

“안 죽었네! 안 죽었어. 농담할 정신 있고.”

내가 어이없어 돌아서려 할 때 지훈 오빠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그리고 내 손을 벌리더니 다른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뭔가를 그렸다.

하트였다. 그러더니 내 손가락을 다시 오므리고 꼭 쥐었다. 그러더니 다시 잠에 빠지는 듯 축 처졌다. 나는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다.

“여기 간호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이상해요.”

간호사가 다가와 내 상태를 살폈다.

“아직 깨려면 좀 더 시간 걸릴 거예요. 웬만하면 벌써 깨진 않아요.”

“방금 깬것다구요.”

“글쎄요.... 아무튼 괜찮으니까 더 자게 놔두세요.”

“그래그래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빨리 깨버린 모양이다. 아빠는 할머니 모시고 들어갈 테니까 니가 옆에서 보고 있으려무나. 지훈이 타박하면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픈 애를 내가 뭘 타박할 거라고 그러세요. 할머니 불편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세요.”

나는 지훈 오빠가 쳐 놓은 뒹에 제대로 걸려 버렸다.

퇴원한 지훈 오빠는 며칠간 우리 집에서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나셨는지 지훈 오빠만 끼고돌았다. 지훈 오빠는 확실히 사람을 홀리는 그 무엇인가는 있었다.

“할머니 지훈 오빠한테 속지마. 내가 호주에서 잠깐 겪어 봤는데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아주 자해 공갈범 같아. 물에 빠져서 난리 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주 피 좀 흘리고 나 꼼짝 못 하게 해버리잖아.”

“헛바닥 잘라 먹을 뻔한 애는 난데 그게 자해니?”

“아! 할머니.... 제가 아주 변태예요.... 막 그 혀를.... 아 민망해.”

“어이구.... 예전 같으면 애가 셋일 텐데. 너도 어지간히 속맥이야. 너 지훈이한테 고자냐고 했다면? 너도 만만치 않구나.”

나는 속삭이듯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남자랑 여자랑 딱 만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꽃이 튼다고 할까나.... 막 땡기고 막 가슴이 몽글몽글하고 그런 거 있어야. 서로 키스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랬잖아. 그것도 중 3 때부터.”

난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 버렸다. 내가 호주에서 오기 전에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까지 고자질을 한 것인지 어이가 없었다. 다시 공격을 시도해 보았다.

“재 호주에서 겪어 봤는데 완전 고자라니까요. 누나 셋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완전 무감각이에요.”

“아 지훈이가 그래서 아빠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니. 제 댄에 많이 참았다던데.”

“아니예요.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더 낮은 소리로 속삭이셨다.

“걱정도 말아라. 내가 볼라구 본건 아닌데 아침에 잘 때 지훈이 방문 살짝 열어 봤는데 텐트를 쳤더라 텐트를.... 좋게 말하면 실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흉측하더라 흉측해.”

“아!! 할머니 제발~ 그리고 지훈 오빠가 나를 입맞춤 한 건 엄연한 성추행이라구요. 호주 같았으면 지훈 오빠는 지금 응급실이 아니라 철창 안에 있어야 한다니깐요.”

“넌 그럼 지훈이한테 입맞춤할 때 계약서 도장 찍고 했니? 그리고 지훈이가 그런 것도 사실 니네 아빠가 막 부추긴 거란다. 남자가 박력이 있어야 한다니 뭐라나 니네 아빠도 알고 보면 구식이야 구식.”

이제 이 집안에 내 편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는 지훈 오빠가 오고 나서 싱글벙글하시다. 그도 그럴 것이 지훈 오빠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다 세팅시켜 준데다가 아빠 서재에도 컴퓨터가 들어와 인터넷 연결까지 완료가 되었다.

“얼굴 변한 거 보면 어디 전방 철책에서 평지풍파 다 맞고 온 줄 알았더니 행정실에서 컴퓨터만 또닥거리고 왔구만?”

내 말은 들리 지도 않으신지 아빠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게 아주 신세계구나! 지훈아. 허허허.”

오빠는 아빠 옆에 딱 붙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며 어눌한 발음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아참!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니. 니가 지훈이랑 다녀오거라.”

“아! 내가 왜요? 그렇지 않아도 첫날 병원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 땀에 창피해 죽겠는데.”

“그럼 아빠가 가야겠니?”

할머니가 과일을 깎아 들어오시며 거드셨다.

“그럼 이 다리 아픈 할미가 가야겠구나.”

“아이. 무슨 병원을 헛바닥으로 걸어가요? 자기가 다녀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재 지금 일부로 안 낮은 척하는 거라구요.”

할머니가 나를 쏘아보더니 말씀하셨다.

“너 요즘 보니까 자꾸 오빠더러 재 재, 뭐 심지어는 이 녀석 저 녀석 하던데 아주 버릇없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주 신줏단지를 집안에 모셔 놓은 모양이었다.

“지훈이는 아프니까 이거 사과 말고 바나나 먹으렴.... 자~”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다.

“재 빠른 73 이라구요. 73 년 1 월! 난 73 년 12 월! 어차피 동갑이었다고요.”

“1 월 하고 12 월이면 1 년 오빠 맞네. 잔소리 말고 과일 먹고 빨리 병원이나 다녀와.”

아빠가 컴퓨터에 시선을 떼지도 않으신 채 말씀하셨다.

‘오빠라고 안 부르면 안 될까? 난 누나가 더 편해’

7 년 전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결국, 내 무덤을 내가 판꼴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훈 오빠와 길을 나섰다.

“오빠 오빠가 뭘 좀 착각하는 거 같은데 할머니랑 아빠가 아무리 저러신 들 내 생각이 돌아온 건 아니야. 오빠 만약 호주에서 나한테 그랬다면 오빠 지금쯤 경찰서 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알지?”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좀 서툴렀지?”

“서투르고 말고 문제가 아니지. 그 헛바닥 내밀 생각은 어쩌다 했어? 아니 그러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그게 아니라 원래 변태 맞지?”

“응.... 고개는 보통 10 도에서 20 도 정도가 적당하고 사람이 오른손잡이일 경우 목은 왼쪽으로 꺾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 그리고 키스를 하면 면역기능과 심혈관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근데 그거 알어? 키스는 거의 인간만 하는 건데 프렌치 키스는 인간이 유일하데 왜 그러냐고 하니 말이야. 일단 다른 영장류도 입맞춤을 하긴 하는데 애들은 입술구조가 감각기관으로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처럼 강한 만족감은 없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입술구조는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지. 그리고 프렌치 키스는 말이지 타액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하고 다른 면역 유전자를 감별하는 작용을 한대.”

나는 나도 모르게 지훈 오빠 말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키스를 글로 배웠다더니 여기 딱 있네. 헛바닥은 아주 엄살이었어.”

발음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집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하니 꽤 씹하기 짝이 없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뭐 좀 아는 거 나오면 으스대는 거 예전하고 하나도 안 변했지.... 얼굴도 좀 안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예전엔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지.”

“그럼 새 남자친구 사귀려면 중학교 앞에서 찾아보면 되겠네?”

“누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커도 좀 이쁘게 클 수 있잖아? 내가 그때 공항에서 오빠 달려 나오는 거 보고 왜 울었는지 알어?”

“왜 그랬는데?”

“오빠 얼굴 보고 괜히 불렀구나 후회되서 울었어. 내가 막 립스틱으로 쓴 글씨 옷소매로 지우는 거 봤지?”

“하하하.... 나는 나랑 손 맞댈라구 그런지 알았지.... 그럼 그때라도 도망가지

그랬니?"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빠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들어봤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본 조비는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참 좀 닥쳐. 똑똑한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중 3 때 만났는데 그때 감정하고 지금 감정하고 같은 순 없잖아. 오빠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근데 우리가 잘린 엇가락 붙이듯이 붙여서 다시 잘해 볼 수 있을까?"

지훈 오빠가 멈춰 서서 나를 바라봤다.

"나 왜 그때 내가 너 밀어냈는지 알아?"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오빠 얼굴을 뻘히 쳐다보았다.

"니네 아버지랑 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사실 나 스스로도 너를 만나기 두려웠어."

"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짐이었어?"

"아니 방금 말했잖아. 나 스스로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때 내 외모가 갑자기 변했다는 이유도 있었어. 너한테 그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검정고시 안내서를 들고 찾아 간 날 오빠가 끝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던 때가 생각났다.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으휴... 못났다 못났어. 얼굴도 맘도.."

"그래, 나 그때 많이 못났었나 봐. 그만큼 깨지기 쉬웠던 유리잔 같았던 거 같아. 항상 맘 졸이고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숨고...."

나도 짐짓 그동안 오빠를 타박만 하고 지적한 게 약간 미안해졌다.

"근데 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니가 맨날 타박해도 귀엽기만 해. 정말 웃겨서 안 웃으려고 참을 때가 많아. 나 이제 유리잔 아니야. 반질반질한 조약돌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너랑 사귄 수 있는 준비가 됐어."

지훈 오빠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냈다.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다. 그때 많이들 유행하던 커플 반지였다.

"저랑 한번 사귀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의 너랑 지금의 나로 그렇게...."

오빠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아.... 미쳤어. 사람들 다 보는데!!”

나는 당황하여 오빠 어깨를 찰싹 때렸다. 그리고 급히 그 작은 상자를 손으로 낚아채고 잔걸음을 걸었다.

“아주 그냥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아무 데서나 이러면 누가 좋아해? 정말 중간이 없지 중간이.... 아이 쪽팔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돌아 걸어갔다.

저만치에서 지훈 오빠가 웃으며 쫓아 오는 것이 보였다.

“아 징그러워!~~”

나는 더 빨리 뛰었다. 지훈 오빠도 더 빨리 뛰어 쫓아 왔다.

“기다려!~~ 싫으면 환불 해야 하는데 왜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귀는 사이가 되어 버렸다. 이다음 이야기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여느 사랑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다가 오해하고 토라지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글로 쓸 거리도 없는 소소하고 일상의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어학원을 끝내기 위해 퍼스로 돌아갔고 오빠는 반년 휴학하는 동안 아빠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남는 방이 있지만, 굳이 내 방을 썼다. 아빠는 아들이 없어서 평생 한이었는데 한풀이를 하셨다며 좋아하셨다. 할머니 역시 그렇게 가지고 싶던 고추 달린 손주를 얻으셨다. 물론 안아 볼 정도로 어린아이는 아니었지만 지훈 오빠는 꽤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 역시 어찌면 지훈 오빠가 연인이 아닌 의붓오빠로 남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훈 오빠는 그렇게 나를 입맞춤하고 만지고 싶었다고는 했지만 결국 지훈 오빠는 아빠와 할머니 차지였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이미 그렇게 엮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모든 것은 과정이고 결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냥 길 위에 서 있을 뿐이다. 같이 있어도 헤어져 있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헤어져도 함께하는 인연이 있는 법이다.

“여보 과일 좀 먹고 해요~”

이 인간은 요새 뭘 하는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는다.

“아이참 과일 좀 먹고 하래두!”

나이 먹더니 귀까지 어두워진 모양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과일 접시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 양반이 보청기를 하나 사줘야 하나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컴퓨터로 뭘 하는지 얼굴을 액정화면 뒤에 가린 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쯤 되면 이제 마누라 얼굴은 보기도 싫다는 거지?”

나는 과일 접시를 책상에 탁 놓으면서 액정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살펴보았다. 무슨 논문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글들이 빼곡했다. 자신의 세계가 침범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아예 회전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보 요즘 뭐하길래 일요일에도 방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오늘은 이야기 좀 해봅시다.”

“당신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무슨 생각? 이혼할 생각은 해 봤어요.”

“아니 그런 사소한 거 말고”

사소한 것? 이 인간이 점점 화를 돋우고 있었다.

“이 세상이 말이지 수많은 선택으로 갈라지는데 그 선택 선택이 또 다른 우주를

만든다면.... 그게 바로 다중우주 원리지."

"응 그래요. 나도 좀 다른 우주로 가고 싶네. 당신 안 만났을 우주로. 내가 평생 자기 개똥철학 잡지식 들어주다 힘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로 귀가 솔깃하네요."

단풍잎도 다지고 이제 은행잎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점점 노릇노릇해지고 있었다.

나는 제과점을 하는 언니에게 신세 한탄도 할 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알고 지낸 지는 몇 달 안 되었지만 언제나 만나면 편안함을 주는 언니였다.

"어머.... 언니 이제 제법 추워졌어."

"그러길래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지."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다니면 뭐해 맘이 추운데 마음이...."

"왜 또 뭘 일 있어? 그래 안 그럼 네가 여기 왔겠니. 그래 뭘 일인데."

흰 머리카락이 어쩐지 고급스럽게 흘러내리다 귀 등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한 언니의 모습이 오늘따라 부러워 보였다. 말하지도 않았지만, 언니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아휴.... 뭐 내 인생에 뭘 일은 뭐가 따로 있겠어. 그이 때문이지."

"우리 나이에 맨 날 남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나중엔 아예 입에 담기도 싫어질 때가 있다더라. 뭐 바람이라도 피우니?"

"바람피우는 남자들은 몰래 바람을 피워도 집에 오면 오히려 잘 해준다는데.... 이 인간은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마시고 골프도 안 치는데 그냥 자기만의 우주에 살아. 아주 그냥 외계인이라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다. 넌 복에 겨운 거야. 어떤 분인지 꼭 한번 보고 싶구나."

"언니는 안 겪어 봐서 몰라. 이젠 내 얼굴도 똑바로 안 쳐다본다니깐."

"에이 설마...."

"예전엔 이상한 사고 치고 다녀서 힘들었는데 요즘엔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이해 안 갈 소리만 하고.... 상관도 없는 물리학을 공부하는지 무슨 논문을 쓰는지.... 대체 알 수가 없어.”

“한 군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스타일이신가보다.”

“언니 포장 그만해.”

“너도 언제나 그렇게 소녀처럼 살 줄 알았니? 관심받으면서? 너희 남편은 스스로 안 보이는데 들어가 있어 주니 얼마나 착한 거니?”

“아무튼, 요즘 변했어.”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 점심 안 먹었으면 빵이나 몇 개 골라 같이 먹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빵을 몇 점 고르다가 우연히 캔디박스라고 쓰여 있는 양철 상자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아직 철도 아닌데 이런 게 있네?”

“응 그거 누가 주고 간 샘플인데 아직은 화이트데이 시즌도 아니고.... 뭐 요즘엔 누가 예전처럼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챙기지도 않는데 좀 철 지난 느낌도 들고.”

“뭔데?”

“응 어떤 중년 신사가 들어오더니 샘플로 드리는 거라고 한번 보시고 맘에 들면 연락하라더라고. 알아보니까 서울 시내 몇몇 제과점에도 똑같이 배포했나 봐.”

언니는 내게 다가와 캔디박스라고 쓰여 있는 양철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다.

“이게 한쪽은 캔디 한쪽은 소설책이 들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설이 꼭 서점 책장에 소설로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 오브제로 다가가며 이 소설의 끝맺음을 현실로 드러내는 실험적 작품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나는 책을 꺼내어 작가를 확인해 보았다. 작가는 “자유”라고 써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필명 같았다.

“내가 잠깐 보니까 아이디어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꼭 책을 굳이 서점에서만 팔란 법이 있느냐 그런 거 같은데 캔디를 먹으면서 책에 내용과 부합된다면 뭐 좋은 아이디어지. 근데 문제는 요즘엔 아까 말한 것 같이 이런 거 젊은 애들이 시들하잖아.”

“그래? 요즘엔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그런 거 안 하나 봐?”

“어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하나. 솔직히 우리 때나 됐으니까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초콜릿 주고 한 달 뒤에 사탕 받고 그랬지. 요즘 여자애들이 얼마나 계산적인데 그런 일을 하겠니?”

책 앞을 가리고 있는 인디안지에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 캔디는 30 년 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구를 보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다.

“게다가 작가가 무명인 것 같고 내가 책을 좀 읽어봤는데 상업적으로 팔기엔 너무 무겁더라고 뒤는 안 읽어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언니가 말하는 사이 나는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언니 이거 내가 가지고 가서 읽어 봐도 돼?”

“그러렴. 잘됐네. 난 도무지 잘 읽히질 않더라고 네가 읽고 대충 감상평 말해주면 나아 좋지. 내가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이야기 맞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실화 50 허구 50 이래더라.”

나는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가다가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웃음이 조금 나왔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책을 덮어 버렸다.

“말도 안 돼. 이런 걸 왜 쓰는 거야?”

나는 무엇인가에 실망하여 읽다 만 책을 서랍 속에 던져 놓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정신이라도 차린 듯이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했다.

그 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당신 아까 말한 그 다중우주인가 뭐가 말이지....”

“응 그래 그게 참 오묘하다니까.”

역시나 내가 맞장구쳐주니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자기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우주로 가보고 싶어?”

“자기야 다중우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맞장구쳐주려면 또 이렇게 사람 무시다.

“우리는 그 많은 경우의 수에서 하나의 경로만을 타고 이 세상을 의식하고 있지만, 다중우주는 모든 가능성에 내 존재가 하나로 겹쳐 있는 거야. 난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저기에도 있지. 확률분포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나는 여러갈래 무한대의 수로 존재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주에서의 내 존재도 결국 존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네.”

그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여보 대단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바로 알아들었다니.... 역시 자기야.”

태평양 한가운데 자기만 둥둥 떠다니는 줄로만 알았던 난파선의 선장이 구조선이라도 만난 듯 나를 얼싸안고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역시 이 남자는 자신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그 날 밤 커피를 옆에 두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내 방 서랍에 넣어 둔 그 소설책을 다시 꺼냈다. 뭔가 끌려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책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 쉬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어스름 새벽빛이 밝아 오고 있었다.

“예쁘네.”

난 그냥 그 한마디가 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두기만 하고 안 쓰던 내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초콜릿박스”

2026 년 4 월 14 일

작자 : 이상훈

E-mail : helpanimal@daum.net